

서울시 산하 중부기술원에 무슨일이

# 입학하니 교수 없고, 직원·원장 다툼... 교육생들 '혼란'

교수 '계약만료' 강사가 수업 중 학생들 "복직 혹은 새교수 뽑아야" 서울시 "더 유능한 강사가 교육중"

서울시 산하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이 계약직 교수의 계약만료 공지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 논란이다. 여기에 원장 비위의 의혹을 둘러싼 내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7일 교육원 A학과 학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교육원 누리집에서 담당 교수 소개와 교육과정을 참고해 교육원에 지원했다.

이달 초 입학한 학생들은 계약직이던 해당 교수의 계약이 2월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학생 B씨는 "교수 소개와 교과 과정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입학 신청했다"며 "하지만 교육원에 와보니 교수는 계약이 만료돼 강사 세 사람이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원 원장실 문에 '출장' 표시가 돼 있다.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법종 기자

◆학생 "새 교수 뽑으라"VS 서울시 "강사로 충분"

학생들은 담당 교수의 복직 또는 조속한 신입 교수 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 교수의 강의 여부를 교육원 측이 사전에 공지 하지 않아 학생을 기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

난달 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교수가 같은달 중순 학생 면접에서 자신이 계속 강의를 맡을 것처럼 이야기한 교수 측의 잘못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일부러 공지 안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교육원은 더 유능한 시간강사를 확보해 기존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기훈 기술

원장은 "지난 4년간 교육원에 학생이 교수 보고 찾아온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학생 모집기간 진행되는 공지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민간 경영상의 일인데 (학생 대상 공지 관여는) 과도하지 않느냐"며 "시 예산을 주고 적법하게 쓰는지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원 땅과 건물, 기자재는 서울시 소유지만 운영은 위탁기관이 한다. 운영권은 기존 송실공생복지재단에서 2015년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가 교육원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41억원, 올해 48억원이다.

교직원 재계약 검토 근거인 취업률 적용 방식도 논란이다. 시와 이 원장에 따르면, 각 학과 교수의 취업률 최종 합산 기간은 학기 종료 이후 3개월 뒤인 5월까지다.

이를 두고 지난해 2월 입사해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교직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엉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다른 학과 교수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중도탈락률 모두 실적이 하위였다"며 "기술원은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 역시 "다른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10%대인 반면, 해당 교수 수업의 중도탈락률이 33%로 높은데다 취업률 또한 9%대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인사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담당 교수는 "밑실에서 열리는 인사위

원회가 재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재심 기간 사유 또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계약 불가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공지한다"고 반박했다.

◆직원-원장 내분으로 시골

교육원은 원장 비위 의혹을 둘러싼 내분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원장은 성추행을 포함한 20여개 민원으로 지난 달 11일 직무정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 현직 직원들은 "직원을 원장실에 불러놓고 1시간씩 다른 직원을 헐담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고과를 매겨 직원들 성과급을 안 줬다", "면접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재계약 하지 않았다", "평소 관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9월 자녀 학자금 지원제를 도입해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혜택을 줬다" 등을 주장했다.

반면 이 원장은 '실무형 원장'이 들어선 이후 출결 기록 조작 등 비위를 일삼던 교직원들이 징계 검토를 막기 위해 음해성 투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015년 위탁기관이 명지전문대로 바뀌면서 교학처장으로 입사했는데,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과 노조가 공고한 기록권을 지키려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반복된 허위 민원에 지쳐 간경화와 당뇨가 와 몸무게 12kg이 빠진 상황"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직원을 불러다 지적인 것을 헐담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인사재량권이 원장에게 있지만, 각종 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처리돼 인사 비위를 저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관용차 사용의 경우, 늦은 밤까지 외근을 한 뒤 교육원에 다시 차를 돌려놓기 힘들어 발생한 일로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직장인이 원하는 복직인 학자금 지원을 제안해 노사위원회가 통과시켰고, 혜택은 지난 학기 정규직·계약직 구분없이 받았다는 반박도 이어갔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원격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 이자부담 경감 주담대 2종 공급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판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 잠 설치 서민차주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금리에 상관 없이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대출을 말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할 수 있다. 통상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난다. 올라간 이자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원금 3억원에 3.6%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30년 만기)을 이용하면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해야 하고,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금리로 제공된다.

금리변동폭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이자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 모두 가능하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韓 제조업 위기, M&A 제도 바꾸고 위험사업 투자를

**산업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  
수출정책·제약심화·수입증가 '3중고' 주력산업 구조전환부터 이뤄져야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선제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정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 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발표'를 통해 "제조업 향상을 위해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은 현재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부가가치 기준 3% 비중을 유지 중이다. 주력산업 생산·수출·총하 부문은 세계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 안에 있다.

한국은 현재 조선해양·디스플레이·반도체·통신기기 분야에서 세계 생산 1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4위, 자동차·가공작기계·철강 부문은 6위권에 자리한다.

다만 한국 제조업의 전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3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제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5%라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제조업의 부상도 한국을 위협한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국제 경쟁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최대 중국 연구소 독일 메릭

〈주요 산업의 경쟁우위 진단〉

	성장성	수요구조		공급구조		경쟁강도
		안정성	차별성	진입장벽	부가가치	
자동차	저	중	중	중	중	상
조선	저	중	상	상	중	중
기계	중	하	하	중	하	상
철강	저	하	하	중	중	상
화학	중	중	중	중	중	상
반도체	고	상	상	상	중	중
디스플레이	고	상	상	상	중	중
통신기기	저	하	중	중	하	중

주: 경쟁우위 진단은 산업 간 비교가 아니라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우위 진단 결과를 의미함.

[자료=산업연구원]

스(MERICS)도 지난 2016년 중국의 '제조 2025' 사업 추진으로 한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의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이미 직접적으로 타격받았다고 진단했다. 주력산업 시장규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급구조의 변화와 경쟁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현재 제조 세계 1위인 조선·통신기기 등 분야의 성장성을 낮게 평가했다.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생산·수출 부문에서 제품구조 고도화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해양의 경우 기본설계와 기자재, 모듈, 개조 생태계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원격모니터링이나

설비운영 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디스플레이는 핵심제조장비의 일본의 존도가 높고, 스마트폰의 경우 플랫폼·모바일SW·핵심기술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제품 기획역량과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대량생산기반 제품 비중이 높고, 노

동·자본 등 요소 투입형 성장에 기반한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중요소생산성이나 혁신활동이 낮다는 고언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 주력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 진출에 주력했다"며 "양적 규모 확대에 주력했으나 제품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수요 변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대중 수출 정책'과 '주요 시장 수출확대 제약 완화', '내수 수입비중 증가'란 3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은 주력산업의 구조전환부터 한다. 구체적 주요 추진전략은 ▲한국형 발전전진과 제조업 혁신 로드맵 수립 ▲생산구조 혁신과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공정혁신과 장비산업 고도화 연계 ▲산업간 연결·협업을 통한 새 생태계 조성 ▲가치사슬 도약을 위한 제조연관 서비스업 발전 ▲혁신주도 핵심인력 확보·구축 ▲산업정책 중앙통제태위 정립 등이다.

한국형 산업발전모델은 산업발전단계와 경쟁우위를 고려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제품구조 전환과 가치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취한다.

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공동투자에 대한 경쟁제도와 지배구조 등 기존 제도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정책을 기업, 교육, 교육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시장 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프로젝트에 선제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의 새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민간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개입에 의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이통사-케이블 M&A 3년 만에 재개

LGU+, 인가 신청서 제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관심  
시장 지배력 약해 허가 기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 대강당에서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M&A 불허 결정 이후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 입장)

3년 만에 또 다시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다. 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를 위한 인가 신청서를 지난 15일 정부에 제출했다. 심사대 위에선 공정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20일 이내까지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포인트는 공정위 심사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M&A)을 독과점 폐해 우려를 이유로 최종 불허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총 8건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자료보정 기간을 이유로 장장 7개월 간 நட장심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3년 전과 기류가 달라졌다. CJ헬로 인수 주체도 바뀌었고, 글로벌 유료방송 시장 경쟁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시장 독과점 우

려 때문이다. 과거 공정위는 심사에서 점유율을 지역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결합하면 전국 23개 방송 구역 중 21곳에서 시장 점유율이 46.9~76%에 이르러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대상 시장을 권역(지역)별로 확정된 셈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시장을 확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근 방통위는 전국 단위 시장 분석을 추가한 '201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등장해 그간 방송 권역별 시장 획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전국 단위의 시장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되면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 가입자 수도 경쟁상황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결합해도 현재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계열을 넘어서지 못한다. 당시처럼 시장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M&A를 불허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인수 주체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 바뀐 점도 심사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국민의 희망  
금융파트너

### 아이의 미래, 더 밝아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자녀보험이 든든해져야  
아이들의 내일도 더 밝아진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소중한 우리 아이 미래까지 든든하게  
☎️☎️☎️ KB The드림아이중은자녀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6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신이 기억해야 할 역사에 가려진 그녀들

“일본의 한일병합통치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것인데, 그 코리아에서 어린 여학생들이 항일민족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도 마음이 끌릴 것으로 안다”

인도 독립투쟁의 상징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가 식민정부에 의해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어린 딸 인디아에게 보낸 옥중서신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선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이 나온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들 중 몇 명을 기억하고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3·1운동과 대한민국의 독립 100주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일 독립운동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김구(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중근(22.8%), 유관순(11.1%), 윤봉길(9.6%), 안창호(5%)가 뒤를 이었다.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유관순 열사 외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를 떠올린 이는 없었다.

##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

역사교과서엔 유관순 열사만 기록  
독립유공자 등록 여성 2.4% 불과  
“여성독립운동가 업적·가치 기려야”

윤희순 의병단 수장, 항일인재 양성  
조신성 한국인 순사·친일파 암살

이러한 국민인식을 대변하듯 2019년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1만5180명 중 여성은 357명으로 전체의 2.4% 밖에 되지 않는다.

1919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모진 고문과 폭력을 견디며 일제에 대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 외에도 많았다.

### 최초 여성의병 지도자 윤희순

1895년(고종 22)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지방 유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음미의병이 일어났다. 윤희순



애국부인회 임원. 번호순으로 김영순 서기, 황에스더 총무, 이혜경 부회장, 신의경 서기, 장선희 재무부장, 이정숙 적십자부장, 백신영 결사대장, 김마리아 회장, 유인경 대구지부장. /독립기념관

선생은 “비록 여자라 해도 나라를 구하는 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여성들의 의병 활동을 독려했다.

윤희순은 ‘안사람의 의병가’, ‘병정의 노래’ 등 의병가를 지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춘천 의병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2년 뒤 고종황제가 퇴위하자 정미의병이 봉기했다. 윤 선생은 여성의병단을 조직했다. 의병자금과 탄약, 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그는 향민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아 낫쇠와 구리를 사들였다. 무기와 탄환을 제조해 의병들에게 공급했다. 1911년 가족과 중국으로 망명한 선생은 노학당을 설립해 항일 인재양성에 힘썼다.

### 친일파가 두려워한 독립운동가 조신성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조신성은 3·1 만세운동에 가담해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 선생은 1920년 영원, 덕천, 맹산 지방에서 청년을 모아 중국 관전현의 항일독립운동단체인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에 가입하게 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권총, 인쇄기 활자 등을 사들여 맹산 선유봉 호랑이 굴에 감춰놓고 혁명적인 광복운동을 전개했다. 호랑이 굴에서 ‘사형선고문’을 인쇄해 일본 관헌과 친일파에게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선고문을 받은 이들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조 선생은 대한독립단 청년을 구하기 위해 불심검문하는 일본 순경을 방해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고 평양에서 옥살이를 했다.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체부를 습격해 3000원을 빼앗아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다. 악질적인 일본인과 반민족적 친일배는 총살했다.

일본 앞잡이였던 한국인 순사를 설득시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한 일도 있었다. 한인 순사 나신택은 조 선생에게 ‘여자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빈정거렸다. 그는 “나는 여자로서 독립운동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그대는 남자로 일본 순사 노릇만 하느냐”고 나무라며 독립운동에 가담케 했다. 그의 말에 설득된 나신택은 예준기, 나병삼, 이운서와 영원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를 빼앗고 순사 박의창을 죽였다.

1927년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근우회가 조직됐다. 조 선생은 평양 근우회 지회장에 추대돼 민족주의 운동과 여성 해방 운동을 추진했다.

###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단체 ‘송죽결사대’

1913년 평양에서 여성독립운동단체 ‘송죽결사대’가 조직됐다. 송죽회는 평양 송의여학교 교사 김경희가 황에스더, 박정석과 합심해 만든 조직이다. 애

국심이 투철한 학생들을 비밀리에 선발, 항일구국정신을 갖게 했다. 김경희는 송의여학교에서, 황에스더는 서울에서, 박정석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915년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치던 김경희 선생은 하얼빈을 가리키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곳엔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듬해 일제 사찰에 의해 이 사실이 발각됐고 김 선생은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송죽회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생활비와 활동자금을 송금했다.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에게는 숙식비와 여비 등을 제공했다. 회원들은 매주 기도회 형식의 비밀회의를 열어 독립쟁취 방법을 모색했다.

이후 김경희 선생은 평양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대한애국부인회’ 결성 준비를 도우며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1919년 9월 19일 작고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같은 해 11월 결성됐다.

구순화, 이도신, 흥매영, 주유금, 조옥희, 백옥순, 김공순, 유예도, 조충성, 신순호, 김태복, 임성실... 역사에 묻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가 유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과서 기준 독립운동가 수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여성 독립운동가가 1명만 나오는 고교 국사 검정 교과서는 3종이나 된다. 교과서에 실린 독립운동가와 근현대사 인물 208명 중 여성은 7.7%인 16명에 그쳤다.

박용옥 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은 “3·1운동운동이 지향한 최대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이었다. 오랜 세월 성차별로 추종적·주변적 삶을 살아왔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만민평등의 국가 건설을 지향한 3·1운동에서 주체적으로 역사의 중심부에 뛰어들어 빛나는 활약을 했다”며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수많은 폭력과 모욕을 당하고 열악한 수감 생활을 견뎌내도 관련 자료가 없어 독립유공포상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 상당했음에도 역사교과서에 실리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다”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분투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합당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금융의 모든 순간 힘이 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신물 NH농협카드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 살리고 높이고

다양한 농업·농촌 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민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 - NH농협

SAMSUNG

# 벨기에 베스트 브랜드 '1위'

유럽 마케팅 기업·독 시장조사업체 주최 소비자 수천명 '점유율·호감도' 설문조사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따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19 베스트 브랜드 벨기에' 어워드에서 올해 최우수 브랜드 1위로 낙점됐다.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는 유럽 마케팅 기업 서비스플랜 그룹과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점유율과 브랜드 호감도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 수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서비스플랜과 GfK가 공동 주최한 베스트 브랜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가전 업계 한류 열풍이 거세다. 삼성전자가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최고의 브랜드'임을 확

가전업계 한류 열풍

고히 한 가운데, LG전자도 올레드 TV 부문 앞선 상품성을 앞세워 북미 시장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 美 최고의 TV로 인정받아

LG전자 '2018년형 65인치 올레드 TV' 컨슈머리포트 "우수한 성능·가격" 호평

LG전자 올레드 TV가 소니 올레드 TV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살만한 TV로 인정받았다. QLED TV도 최우수 TV에 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당장 살 수 있는 최고의 TV'로 LG전자 2018년형 65인치 올레드 TV를 선정했다. 지난해 출시된 250여개 제품 중 1위다.

평가 기준은 제품 성능과 가격 등이다. 컨슈머리포트는 LG 올레드 TV가 우수한 성능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호평했다. 소니 올레드 TV도 베스트 TV에 포함됐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뒤쳐졌다.

LCD 부문에서도 LG전자는 소니에 판정승했다. 70인치 이상 슈퍼사이즈 부문에 LG전자 4K



LG전자 올레드 TV는 미국 컨슈머리포트에서 가장 살만한 제품에 선정됐다. /LG전자

UHD 스마트 TV와 소니 4K UHD TV가 오른 가운데,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제품이 600달러 이상 저렴하다며 더 낫다고 평가했다.

최우수 TV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섰다. 65인치 크기 LG전자 나노셀 TV와 삼성전자 QLED TV가 우수한 영상 표현과 높은 음질 표현이라며 호평받았다. /김재용 기자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삼성엔지니어링, 수주 목표 '청신호' 2분기 '대형 프로젝트' 실적 기대 ↑

알제리 정유공장 수주 가능성 '高' 2분기 매출 증가도 본격화될 전망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수주 목표 6조6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올해 2분기부터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의 상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 가운데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 규모만 58억달러(약 6조 5900억원)에 달한다.

관계사 물량이 대부분인 비화공부문 수주가 연평균 3조원 규모임을 감안, 상반기에 연간 수주 목표 달성도 가능한 수준이다.

우선 북아프리카 최대기업 소나트랙이 발주한 알제리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해당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트랙은 공사비 총 25억원에 달하

는 이번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이 성공할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의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은 더 수월해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6조6000억원으로 제시, 알제리 프로젝트만 수주해도 약 3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알제리 프로젝트 외에도 현재 입찰 예정중인 프로젝트가 상당하다. 태국 PTT GC가 발주한 미국 ECC 프로젝트, 이집트의 PDH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르잔 육상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정유 프로젝트 등에 올 2분기 안에 입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부터 매출 증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김치호 연구원은 "두름 정유공장, 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의 원유처리시설 프로젝트 등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매출 증가세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LG G8 씽큐' 체험단, 경쟁률 200대 1 '치열'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체험하려는 소비자의 열기가 뜨겁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LG G8 ThinQ (씽큐·사진)' 체험단 모집 행사에 1만60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률은 200대 1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전문 블로거를 제외한 일반인 체험단 80명을 모집했다.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체험단에 지원한 셈인데, 이는 LG전자가 지난해 LG G7 씽큐나 LG V40 씽큐의 체험단을 모집했을 때와 비교하면 60% 이상 늘어난 숫자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주 구매 연령층



인 20~35세 비중이 전체 지원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도 고무적이다. 지원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7:3 정도였는데, 여성 지원자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20~35세로 나타났다.

LG G8 씽큐는 89만7600원의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두루 갖췄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가족사랑 약속

# 엘로카펫이 보이면, 차보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약속 '엘로카펫'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면 약속하세요!

엘로카펫이란?  
교통사고 피해가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의 턱과 바퀴에 설치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 앞이나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엘로카펫'을 후원합니다.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신형 쏘나타’ 돌풍… 사전계약 5일 만에 1만대 돌파

SUV 열풍 속 중형세단 들쭉  
하루 평균 2000대씩 계약  
개인·20대 고객 비중 증가  
첨단 편의사양 장착 효과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기대작 신형 쏘나타가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을 진행한 결과 닷새 만인 15일까지 1만203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약 2000대씩 계약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쏘나타 한달 평균 판매대수 5487대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실적을 불과 5일 만에 달성한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국산 중형세단의 산업수요가 무려 19.8%나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 수치상의 대수 그 이상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신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인 7세대 쏘나타 대비 개인 고객 비중과 20대 젊은 세대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

5일간 접수된 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중 개인고객 비중은 무려 48.9%로 5년 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7세대 쏘나타의 개인고객 비중 38%보다 무려 10.9%나 높아졌다. 또 개인고객 중에서 20대 비중은 14%로 집계돼 7세대 쏘나타 5.3% 대비 8.7%가 높아졌다.

이같은 인기 요인으로 차세대 파워트

레인과 3세대 플랫폼 적용, 첨단 사양 기본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신형 쏘나타는 차세대 파워트레인과 '스마트스트림'과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차량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고,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과 첨단 편의사양을 대거 기본화하고도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인상을 최소화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기존 쏘나타에서는 선택품목이었던 '첨단 주행안전 기술'과 고급차에서 볼 수 있었던 '편의사양'을 모두 갖춘 신형 쏘나

타 엔트리 트림(시작모델) '스마트'의 판매가격을 2346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쏘나타 뉴 라이즈' 엔트리 트림 '스타일' (2219만원)보다 127만원 높은 것으로 첨단 주행안전 기술과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점, 차세대 파워트레인과 3세대 플랫폼 적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형 쏘나타는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엔트리 트림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LFA), 하이빔 보

조(HBA), 운전자 주의 경고(DAW), 전방 차량 출발 알람 등의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대거 기본 장착했다. 기존 쏘나타에서는 선택품목인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I' (131만원)을 구매해야 누릴 수 있는 사양들이다.

이와 함께 주로 고급차에 적용됐던 '전자식 변속버튼(SBW)'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EPB)' 등의 첨단 편의사양과 함께 'ISG시스템'과 '파워 차일드 락'까지 기본화했다.

가격은 ▲스마트 2346만~2396만원 ▲프리미엄 2592만~2642만원 ▲프리미엄 패밀러 2798만~2848만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2994만~3044만원 ▲인스퍼레이션 3289만~3339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신형 쏘나타의 스마트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택시 모델은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한라시멘트, 지리적 장점 살려 해외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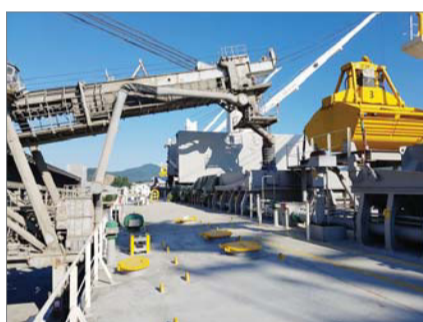
강릉 공장, 동해·태평양 이용  
남미·동남아 등 수출 활로 넓혀

한라시멘트가 해안에 공장이 위치한 장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지난해부터 관련 경기가 서서히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업계 전체가 고전을 겪을 가능성이 커 해외로 적극 눈을 돌리기로 한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라시멘트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물량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라시멘트는 현재 강릉 옥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동해와 태평양을 이용해 해외 수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라시멘트 외에 해안사로는 쌍용양회(동해), 삼표시멘트(삼척)가 있다.

실제 한라시멘트는 지난해 초 아시아시멘트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113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40%나 늘어났다.

이는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등 기존 거래처의 물량 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중국



강원도 옥계에 접한 수출 선박과 한라시멘트의 클링커 선적 장면.

등 신규 거래처 추가 확보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주택건설 경기 둔화가 이어질 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서 나온 국제입찰에서 100만톤에 달하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전통적 전략지역인 남미와 동남아의 계획 물량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을 끝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거래처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남미와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는 동서횡단 무역에서 앞으로 북방과 남방국가를 아우르는 남북중단 무역으로 탈바꿈을 모색하면서다. /김승호 기자 bada@

## LGU+,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4기 모집

9월까지 온라인 홍보 활동

LG유플러스는 대학생 디지털 기획·홍보 대외활동 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4기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대감'은 '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의 감각적인 콘텐츠의 줄임말이다. 2017년 10월부터 1기 활동이 시작됐다. LG유플러스 5G 서비스와 '신뢰', '소속감', '휴머니즘'이라는 브랜드 가치 아래 진행 중인 사회공헌 및 고객감동활동을 소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를 제작해 LG유플러스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대감 4기는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유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인 주제 발굴·기획의 'IT·TECH' 분야, 영상 촬영·편집의 '영상' 두 분야로 모집한다. 24일 자정까지 LG유플러스 유대감 공식 포스트 내 유대감 4기 모집 게시글을 참고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유대감 4기는 4월 5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에서 진행되는 발대식에 참가한 뒤 9월까지 총 6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가진다.

/김나인 기자

## SUV야, 세단이야... 장점만 다 모았네

자동차 시승기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볼보자동차가 지난 5일 출시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V60 크로스 컨트리는 어린 자녀를 둔 30대 젊은 부부와 싱글 남성을 겨냥한 차량이다. 볼보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물량 1000대 중 사전계약이 90%나 이뤄졌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2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포레스트에서 출발해 강원도 원주를 돌아오는 총 140km 구간을 주행하며 국내 출시된 일반 트림 V60 T5 AWD 모델과 상위 트림 V60 AWD 프로 모델을 시승했다.

처음 마주한 V60은 SUV와 세단을 합쳐 놓은 것 같은 외관을 띠고 있었다. 차체재원은 전장 4785mm, 전폭 1850mm, 전고는 1490mm다. 지상고는 210mm로 이전세대보다 74mm 높아졌다. 후방 차체, 트렁크는 왜건(wagon)형 승용차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

내부 마감은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곳곳에 보이는 나무무늬는 스웨덴 북유럽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레그룸과 헤드룸도 넓어 1열과 2열 시트 모두 180cm 이상 성인남성이 탑승해도 공간이 넉넉했고



주행 중인 신형 크로스컨트리(V60)

/볼보자동차코리아

국내 물량 중 90% 사전계약 완료  
스웨덴 북유럽 감성 내부 디자인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 주행 성능  
장시간 운전자 위한 마사지 기능도

착좌감도 훌륭했다.

직렬 4기통 T5 터보차저 2.0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론닉 변속기 조합으로 출시된 V60은 최고출력 254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힘을 자랑한다. 시승 시 일부 구간에서 폭우를 만난지만 빗길에서도 승차감은 부드럽고 산길 등 급커브 구간에서의 조향은 안정적이었다.

V60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도로 지형이나 날씨에서도 안정적인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성능에 있었다. 스프링과 완충기의 댐핑컨디션을 조정할 크로스

컨트리 전용 투어링 새시와 서스펜션을 적용해 오프로드에서의 대응력을 높였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았으며 가속 시 발생하는 노면 소음도 잘 잡아내었다.

V60 프로 모델에서는 운전 중 마사지 기능도 경험할 수 있었다. 장시간 주행으로 피로한 운전자를 위해 적격이었다.

V60을 운전하며 각종 첨단 편의시스템도 체험했다. 시티 세이프티 기술이 전 차체에 기본 적용됐으며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며 최대 14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파울릿 어시스트 역시 기본 탑재됐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일반 트림 V60 T5 AWD가 5280만원, 상위 트림 V60 T5 AWD 프로는 5890만원이다. 영국·스웨덴보다 600만~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정연우 기자 yw964@

## SKT '티움', IF 디자인 어워드서 금상

실내 건축분야·설치부문 본상

SK텔레콤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자사의 '티움'이 실내 건축분야 '박람회·상업 전시' 부문 최고상인 금상과 설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티움'은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비

전 제시를 위해 SK텔레콤이 설립한 ICT 체험관이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이 6400건이 넘는 작품을 출품했고, 금상은 66개 작품에 수여됐다. '티

움'은 실내 건축분야 '박람회·상업 전시'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진은 '티움'에 대해 "일관된 디자인의 공간과 콘텐츠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선보인다"며 "5G, VR, AR, 홀로그램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장 연출은 방문객의 경험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간결하고 수준 높은 미래 공간을 보여준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One  
Shinhan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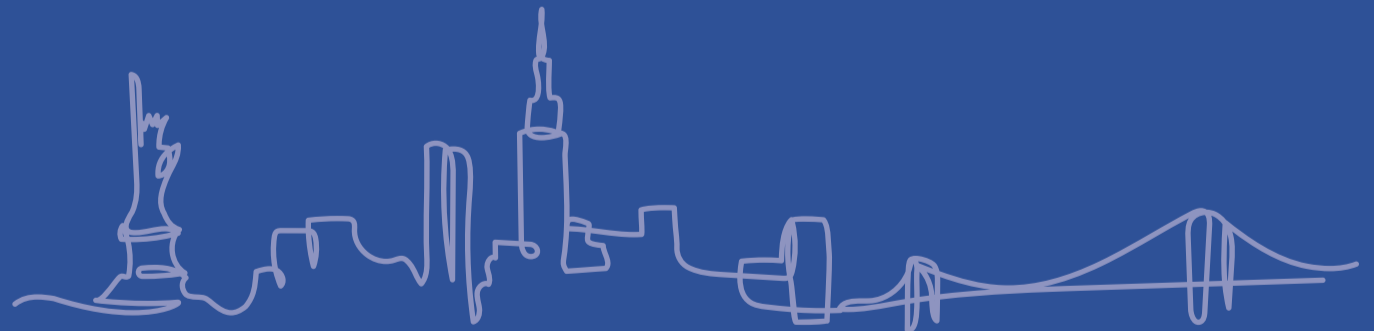
애플  
0.1주만 주세요

업계 최초, 신한금융투자가 시작합니다

## 소수점 해외주식구매 서비스

기존 1주 단위로 거래됐던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 우량주식 37개 종목으로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세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모바일(MTS)미국 기준 수수료는 0.25%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644호(2018-11-23~2019-11-21)

글로벌 자산배분 전문가 |  신한금융투자

# 저축은행, '관료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주주총회

금융권 네트워크·경륜 등 경험  
금융사 경영상 조언·지식 제공

일각선 금융당국 방패막이 우려

저축은행 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관계 고위직을 거친 유력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권 등에서 요직을 거친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기업 경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JT천애·유진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 이사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 이력을 가진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강임호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융업에 정통하면서 관련 네트워크 또한 풍부한 금융 전문가라는

<주요 저축은행 사외이사 주요 경력>

저축은행	사외이사	주요 경력
웰컴저축은행	강임호	·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 現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T천애저축은행	이재호	· 前 재정경제부 서기관 · 前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이중호	· 前 한국은행 부국장 · 前 금융감독원 국장
유진저축은행	정희수	· 前 제17·18·19대 국회의원 · 前 기획재정부 위원장
	최종덕	· 前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사회기금과장 · 前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KB저축은행	윤승용	· 前 국방홍보원장 · 前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한국투자저축은행	한복환	· 前 금융감독원 검사국 팀장 · 前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평가다.

JT천애저축은행의 이재호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상임이사를 거쳤고, 이어 한화생명 사외이사과 나라신용정보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또 이중호 사외이사는 한국은행에서 부국장 등을 역임하며 23년간 재직 후,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준비단 법령기획팀장을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국장 등을 수행한 금융당국 인사다.

이어 유진저축은행의 정희수 사외이사는 지난 2005년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16년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3선을 지낸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위원장 역임했다. 또한 최종덕 사외이사는 기획예산처와 인천공항세관, 경제기획원을

거친 공무원 출신이다.

KB저축은행의 윤승용 사외이사는 국방홍보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눈에 띈다. 이후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활동하며 금융업권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를 쌓아 내부에서 회사의 내부 통제와 윤리·건전경영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경영활동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기에 최적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한복환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검사국 팀장을 거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은행 금융안정업무 지원 과견 활동 등을 수행하며 금융 당국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인물이다. 금융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이 가진 금융권 네트워크와 경륜 등이 금융사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인물은 금융 정책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췄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아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경영을 견제할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등 유력 기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논란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견제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금융사들은 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해 기업 입장에서 당국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단순히 전관예우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민간 전문가와는 다르게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이나 관료계와 관련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소속 임직원과 가족 봉사단 100여명이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행복상자'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즈를 취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독립유공자·후손들에 '행복상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35인과 후손 20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상자'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브랜드 중 하나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다양한 물품을 정성껏 담았다.

이날 하나금융그룹 소속 임직원과 가족 봉사단 100여명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 모여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상자'에 물품을 담고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

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10여명도 함께해 다른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곳에서 독립의 의미도 되새기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 애매한 수수료·판매경로, 펀드명칭에 넣는다

금감원, 펀드핵심정보 즉시확인  
개정 '기업공시서식' 10월 시행

앞으로 펀드명칭만으로 수수료나 판매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펀드명칭이 'A증권투자신탁(주식)C-Pe' 등 암호처럼 어려웠지만 '클래스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한글명칭이 같이 기재된다.

이와 함께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0만원을 투자할 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하며, 같은 유형의 펀드나 창구·온라인 간 비용을 비교해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 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와 펀드클래스 명칭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명칭 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한다. 다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대체가 아닌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함에 따라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3단계로 분류해 체계화했다.

1차 분류는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선취(A) ▲수수료후취(B) ▲수수료미징구(C) ▲수수료선취후취(D)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2차 분류 기준은 펀드판매경로다. ▲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 등이다.

1·2차 펀드 클래스에 추가되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클래스를 3차로 분류했다. ▲보수채급(CDSC) ▲무권유저비용(G) ▲개인연금(P1) ▲퇴직연금(P2) ▲주택마련(H) ▲기관(F) ▲고액(I) ▲랩(W) 등이다.

예를 들어 'Ag'였던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이 부기된다. 'Ce-P1'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알기 쉬워진다.

또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

한다.

펀드비용은 실제 지불 비용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투자할 때 1~10년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기재한다.

또 펀드 간 비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과 창구매수 및 온라인매수시 비용정보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펀드핵심정보는 간이투자설명서 첫면에 집중 기재한다.

첫 면 기재사항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이다. 이 외에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위험 ▲매입·환매방법 ▲환매수수료 ▲과세정보 및 펀드 클래스별 펀드비용 부과방식 등 순으로 기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 금감원, 보이스피싱 차단 AI앱 시범운영

사기확률 80% 도달때 경고음·진동

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IBK기업은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AI 앱(App)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80% 등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음성 및 진동 알림을 제공한다.

우선 기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개선·보완

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AI 앱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확도 제고 등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앱은 통화 내용의 주요 키워드, 발화 패턴, 문맥 등을 파악, 피해사례와 비교 분석해 금융사기 여부를 인지하는 방식"이라며 "정부기관 사칭의 고전적 방식은 물론 대출사기 등 첨단화·교묘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 AI 앱이 활성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파이페이와 MOU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KB캄보디아은행 본점에서 캄보디아 파이페이(Pi Pay)와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이페이는 2017년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5만명의 사용자와 35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캄보디아 모바일 페이먼트 부문 최대 핀테크 업체다. 작년 말 이용금액이 1억5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중국의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는 등 캄보디아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결제를 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디지털 뱅킹 플랫폼인



(왼쪽 세번째부터)토마스 포코니(Tomas Pokorny) 파이페이 최고경영자(CEO)와 최창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상무가 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KB캄보디아은행 본점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브 KB 캄보디아'는 이번 제휴를 통해 파이페이와 가맹점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주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 홈쇼핑에 '품격' 더하니... 명품·예술·고가품 '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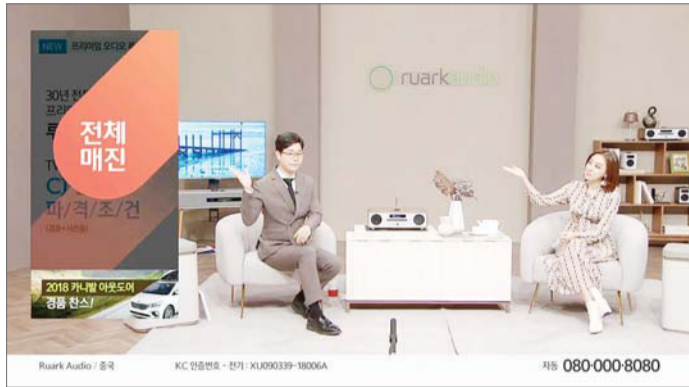
4050 중년, 홈쇼핑 큰 손으로 부상  
400만원대 프리미엄 오디오 '완판'  
롯데홈쇼핑 명품 매출 230% '급증'  
뮤지컬 공연, 신개념 '미술 렌탈'도

최근 경제력을 앞세워 명품패션·잡화나 취미가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뉴노멀 중년'이 늘면서 가성비를 대표하는 홈쇼핑 방송도 바뀌고 있다.

뉴노멀 중년이란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 등 나를 위한 소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40~50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과거 가족에 헌신하던 중년의 이미지가 바뀌어음을 보여준다.

이에 홈쇼핑 방송에서도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날개돋힌듯 판매되고 있다.

앞서 15일 CJ ENM 오쇼핑부부는 400만원대 프리미엄 '루악오디오'를 판매했다. 루악오디오는 30년 전통의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로, 1960년대 수제 가구의 외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하이파이(hi-fi, 24비트 이상의 고해상도 음



루악오디오 판매 장면.



/CJ ENM오쇼핑부부 더 스테이지 방송.

'오픈 갤러리'는 약 700여명의 작가들이 그린 원화 작품 2만여 점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렌탈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그림을 보고 원하는 그림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 큐레이터가 취향과 공간에 맞는 그림을 추천하고 전문팀이 운송과 설치를 담당하는 등 입문자들도 그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문화 관련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유는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여가생활을 즐기는 중년층이 늘면서 예술 티켓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체 소비 양극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TV홈쇼핑에서도 프리미엄 상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경우 다른 관련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등 우수 고객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아 TV홈쇼핑 충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원) 전문 스피커 제작 노하우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루악은 영국 프리미엄 백화점인 '해롯', '셀프리지'와 하이엔드 생활용품 편집숍 '더 콘란숍' 등에 입점해 있다.

CJ ENM 오쇼핑부부는 지난해 11월 TV홈쇼핑업계 최초로 루악오디오를 선보여 완판 기록을 세웠다. 400만원대의 가격과 새벽 1시라는 늦은 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160%를 넘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 눈 여겨볼 점은 이날 방송에서 루악오디오를 구매한 남성 고객 비중이 약 40%에 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CJ 오쇼핑 주문한 고객 중 남성 비중이

2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홈쇼핑에서 구찌와 프라다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직접 수입해 선보이면서 관련 상품 매출도 크게 늘었다.

CJ ENM 오쇼핑부부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매출(주문액 기준)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명품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30%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홈쇼핑은 15% 가량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2002년 홈쇼핑 업계 최초로 명품 전문 프로그램 '클럽노블

레스'를 론칭해 매주 2회 고정 편성하고 있으며 버버리,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 등 총 20여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홈쇼핑 업계가 최근들어 문화 콘텐츠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9일 롯데홈쇼핑의 프리미엄 컬처 프로젝트 프로그램 '더 스테이지'를 통해 뮤지컬 '그날들'의 예매권을 판매했으며 매진을 기록했다.

신세계TV쇼핑은 원화 미술 작품을 렌탈해 즐길 수 있는 '오픈 갤러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미세먼지 2題

### 대기질 개선·연료비 절감 1석2조 친환경보일러 '주목'

친환경·고효율 年20만원 절감효과  
경동나비엔·귀뚜라미 판매 '증가'

'이집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로 바꿔볼까.'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까지 뛰어난 보일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정의 보일러를 바꾼 지 10년 정도가 됐다면 연한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멈추 수리한 경험 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덴싱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4분의1에서 최대 5분의1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나비엔은 1988년 당시 국내에서 콘덴싱보일러를 처음 선보였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뛰어난 장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콘덴싱보일러가 일반에게 잘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했다.

콘덴싱보일러가 일반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데다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간에 숨어있었기 때문에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소비자들이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점도 한 몫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콘덴싱보일러나 또 일반보일러에 '저녹스(低NOx) 연소장치'를 장착한 보일러들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콘덴싱보일러의 원조인 경동나비엔의 경우 2016년 당시 전체 판매 물량 중에서 콘덴싱보일러가 33% 정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엔 38%까지 늘어



귀뚜라미의 저녹스1등급 가스보일러.

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엔 관련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친환경보일러는 가격 부담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24~32평 기준으로 일반보일러는 약 60만~70만원 대이며 콘덴싱보일러는 이보다 20만원 정도 비싸다.

하지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고효율로 연간 20만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수명이 1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인 셈이다.

콘덴싱보일러에선 후발인 귀뚜라미 보일러는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 보일러' 등 콘덴싱 제품 외에도 일반보일러에 저녹스 기술을 적용한 저렴한 제품을 내놓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독려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환경·고효율하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콘덴싱보일러 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관련 제품 판매 비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는 2009년부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가정용 저녹스(콘덴싱) 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환경 부까지 나서 지원해주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미세먼지 '재난'에 공기청정기 '대란'

렌탈·판매 등 공기청정기 판매 쑥  
SK매직 390%·코웨이 260% ↑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SK매직, 코웨이 등 제조회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이달 1~11일 사이에만 렌탈과 일시불로 2만5000대를 판매하는 등 3월 한 달간 총 3만3000대가량을 판매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예약 판매 등 납품 실적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무려 390%나 늘어난 실적이다.

여기에 최근 국방부에서 진행한 공기청정기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과 공군항공안전단 등 관련 부대에 납품할 '슈퍼1공기청정기' 5500대도 포함돼 있다.

SK매직은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선보인 '슈퍼청정기 3종', 미니언즈 캐릭터를 적용해 디자인한 '미니언즈 공기청정기', 모션 기능을 적용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집중 청정이 가능한 '모션 공기청정기' 등이 주력제품이다.

4월에는 신제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4분기에만 6만대 이상의 공기청정기 판매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매직은 올해 공기청정기 총 판매계획도 17만대로 올려잡았다. 지난해의 경우 11만대를 판매했었다.

SK매직 관계자는 "미세먼지, 황사 등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



코웨이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AP-1516D.

제로 부각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회적 이슈에 불안, 불편 등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수준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웨이도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0%나 늘어났다.

이 기간 코웨이 공기청정기 구입고객 10명 중 8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렌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터 교체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기에 렌탈이 유리하다는 점도 선택에 한 몫 했다.

특히 코웨이의 경우 판매된 전체 공기청정기 중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듀얼과외 공기청정기 ▲트리플과외 공기청정기 등 총 4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청정기능'을 갖춘 제품을 주로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이슈의 영향으로 강력한 청정 기능과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코웨이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공간 체험 서비스 등 선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공기청정기 시장까지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 납품中에 판촉비 전가 여전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적정 판매수수료율을 평균 23.8%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이 이보다 6%포인트(p) 가량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할 경우 참여 중소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통해 마진을 줄이고 있지만 이들 유통기업이 납품사에 받는 수수료는 대부분이 변동 없이 중소기업만 '제살깎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대형마트 평균 29.7%  
납품사 희망수수료보다 6%p ↑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계약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최근 3년간 29.7%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 23.8%와는 괴리가 컸다.

지난해의 경우 백화점이 중소기업들에 받은 평균 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이 30.2%로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이 29.8%, 현대백화점이 29%였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의 의류(평균 39%), 현대백화점의 생활·주방용품( 38%), 롯데백화점의 의류·구두·액세서리( 37%)가 지난해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주로 꼽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할인행사 등에서 유통업체보다 관련 할인비용이 주로 납품 중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bada@

금강산오션리조트

서울출발 동서고속도로 개통  
2시간 으로 가까워졌습니다.

495만원

10년후반환/여름휴가 예약중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곳  
통일전망대 화진포 송지호와 금강산비경을 간직한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페밀리형 53㎡ 495만원, 스위트형 99㎡를 6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2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1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중국 청도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 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가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기업은행 244-025348-04-029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에 필수 건강 파트너!

사우나는 집에서...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사우나, 국내 출시!



1~2인용



5~6인용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농막, 캠핑하우스

리치하우징 문의 : 1544-6299

24시간 상담

작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석유·석탄공 2년 연속 '불명예'... 남동·중부발전 '우수'

남동·중부발전, 3년연속 '우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호평  
우수기관 포상 등 협력 독려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8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석유공사, 석탄공사는 2년 연속으로 '개선'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4사와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KOTRA)는 '양호' 평가를 받았다. 남동발전, 중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형 (28개)	준정부형 (26개)	기타형 (4개)
우수 (7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코트라	-
양호 (22개)	가스공사, 서부발전,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 한전KDN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로교통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보통 (21개)	가스기술공사, 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마사회, 여수관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기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전KPS	공무원연금공단,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인력공단, 송강기안전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인터넷진흥원, 철도시설공단, 콘텐츠진흥원	코레일유통
개선 (8개)	석유공사, 석탄공사, 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엔 58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를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 우수 사례의 경우 남동발전은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 협력사의 생산성은 끌어올리고 불량

률과 원가는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의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 점검을 지원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에 시설 임대료를 50% 할인해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8곳 지어 1만6872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연간 수익은 46억4900만원에 다할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흡소핑,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과 한류가 확산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희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대형 유통업체 연계 매칭을 이끄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넓히고 우수 기관 포상 등 상생 협력 활동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또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의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부산 수영구 '다시찾고싶은 광안리' 민락동 회센터 미디어아쿠아월



경남 통영시 재래시장 활성화 온라인 영상주문 서비스



## 경남 통영시·부산 수영구 등 4곳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만든다

국토부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들 4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엔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각각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2500만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주민체감도 및 기대효과가 큰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추진된다.

경남 통영시는 시민참여를 통해 선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 스마트 체형 경매, 정보·환경·안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상권과 함께 하는 스마트도시 통영'을 추진한다. 부산 수영구는 지역 관광자원을 스마트 서비스로 특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광안

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보·주차정보·결제 등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내 3개 관광권역별 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접한 2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기존의 백제문화유산에 스마트서비스를 접목해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로 육성한다. 공주·부여 간 공간적 연계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심 내 고도(古都)체제를 위한 열린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유적지 주변으로만 집중되었던 관광동선을 도심까지 확장한다.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가이드, 체험프로그램, 빈집공유 등 '대안관광 공유서비스'로 관광수요 창출과 더불어 고령인구와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방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네곳의 지자체에서도 출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신하 기자 csh9101@

## 韓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대출규제 완화·금리 인하로 빚 부담 커져

GDP 비 가계부채 비율 96.9%  
부채 규모·소득대비 부담 등 확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2위로 여전히 가계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96.9%였다.

BIS가 통계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에 중국(1.2%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이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룩셈부르크(5.4%포인트)가 1위였다. 이어 중국(3.5%포인트), 한국(2.7%포인트) 순이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세가 빨라진 이유는 2014년 중반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서부터다. 지난 4년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13.8%포인트로, 중국(16.2%포인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데다 소득과 비교해 부담도 빠르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작년 3분기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5%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가 있는 1999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DSR은 가계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BIS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작년 3분기에 DSR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과 핀란드, 캐나다 등 3개국뿐이다. 각각 0.1%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한국은 2016년 3분기부터는 DSR이 매분기 상승세를 이어왔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데다가 금리상승이 겹쳐서다. 이 기간 DSR 상승폭이 1.1%포인트로 2위인 캐나다(0.5%포인트)와는 차이가 크다. /김희주 기자 hj89@

## 기보 'TECH밸리' 참여대 확대... 활성화 UP

이대·숙대·영남대 등 60곳과 협약  
창업교육·투자 등 토털서비스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인 'TECH밸리' 파트너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수, 연구원들의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TECH밸리는 기보의 대표적인 혁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이화여대, 숙명여대, 영남대와 '대학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U-TECH밸리)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내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TECH밸리 협약을 한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강정에 숙명여대 총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학은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6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 내 우수 기술창업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기술창업기업에 창업교육·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컨설팅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토털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북미회담 교착·아이돌 스캔들... 빛 바랜 신남방정책

## 동남아 3국 순방 마친 文 대통령

靑, 캄보디아 순방사진 바꿔 게재  
北, 비핵화 협상중지 가능성 알려  
한류 홍보 중 '정준영' 논란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인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터진 사건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 3국을 돌며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 ◆ 캄보디아에 발 디딘 文... SNS서 대만 명소 사진 게시한 靑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살펴보면 신남방정책은 꽤 빛을 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들과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해의 진출 기업이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체결 ▲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타결 ▲브루나이와의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LNG 관련 사업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밤 아세안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 옥의 티가 나왔다. 옥의 티는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10일~12일)와 말레이시아(12일~14일)를 방문한 후 발 디딘 캄보디아(14일~16일) 순방 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친절한 청와대-대통령의 아세안 3국 세 번째 순방지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 중에는 대만의 명소 국가양청원(종합예술 문화시설) 사진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는 외교국인 캄보디아에 걸레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지적이다.

### ◆ 순방서 '한반도 비핵화' 강조한 文... '美와의 비핵화 협상 중단' 운운한 北

문 대통령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 순방 때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발언이 북한에서 나왔다.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강대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순방 때 각국 정상들에게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고 했으며, 지난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각각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중재자 역할을 자처, 국제사회와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그 래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 부상 발언 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최 부상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 ◆ 정준영 동영상 파문에 짹짹해진 文의 한류 외교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한류 홍보에도 힘썼다. 같은 기간,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류 홍보에 씁쓸한 뒷말을 자아냈다

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슬람 대중문화)이 접목된다면, 더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1일 살레하 브루나이 왕비와의 환담 때 한국 드라마·영화·배우·문화 등을 언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류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파문이 장기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류를 활용한 외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를 활용한 특별한 외교를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족에게 아이돌 '엑소'의 사인이 담긴 CD와 사이니의 '민호'의 축하동영상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우리나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에게도 한류를 활용한 외교력을 뽐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주대한국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걸스플레이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아이돌 사이니의 민호를 동참시켰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만찬 때 가수 박효신의 축하공연을 미국 정상 내외에게 선사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 또 자녀 특혜채용 "정치인들 어떻게 민나"

### 김성태 딸, KT정규직 과정 특혜의혹 해수부·과기부 장관 후보자 도마위

정계가 또 다시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국민들이 정계를 불신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해에만 수차례 불거졌다.

우선 야당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을 수사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KT 전 임원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논란을 직면해야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 선급(선박검사기관)에 특혜채용됐음을 17일 주장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부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

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 조씨는 1년간 근무했다.

이 업체는 조 후보자가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KAIST와 동원시스템즈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11년 설립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서 3년간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생각해 보니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향후 공과사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도 지난달 불거졌다. 시사저널은 그달 13일 검찰로부터 '2013~2015 신한은행 신입채용 청탁자 명단 관련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정우택·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신한은행에 청탁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정무위는 은행권을 감시하는 게 역할이다. 다만 이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우승준 기자

## 농식품부, FAO 韓 연락사무소 설립 협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해 UN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FAO 한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 협정문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UN 전문기구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농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적극 전수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위

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FAO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내 FAO 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8월 최종문안에 합의해 12월에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정체결 이후 사무소장 선발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 사무소는 향후 우리나라와 FAO 간 지속적인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하고, 식량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시행, 개도국에 대한 경험 및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대한 개도국의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AO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FAO 내 한국인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이낙연, '몽우리들을 찾아서' 사진전 관람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청운동 류가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몽우리들을 찾아서'를 관람한 후 사진과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총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해외 각지에서 나라를 되찾고 헌신했던 선조들, 그 마지막 장소와 후손들의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 무거운 채무감에 압도됩니다. 신혼집을 팔아 9개국 100여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20개월 동안 다니며 취재하고 촬영하신 김동우 작가의 애국혼을 엿보았습니다"라고 썼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청운동 류가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몽우리들을 찾아서'를 관람한 후 사진과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총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해외 각지에서 나라를 되찾고 헌신했던 선조들, 그 마지막 장소와 후손들의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전. 무거운 채무감에 압도됩니다. 신혼집을 팔아 9개국 100여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20개월 동안 다니며 취재하고 촬영하신 김동우 작가의 애국혼을 엿보았습니다"라고 썼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 수산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시범운영

### 해수부, 고등어·갈치 등 6종 대상

정부가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 시스템(http://fish-sugeup.kmi.re.kr)'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들어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산물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등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해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산지가격·도매가격·소비자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정보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했다.

올해 구축할 2단계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어종에 대표적인 양식수산물 등 5~6개 어종을 추가하고, 더욱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대상지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수급 및 물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스템 발전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에듀파인 ‘연착륙’... 의무 도입률 사실상 100% 달성

568개 사립유치원 모두 도입  
의무도입·공영형 등 767개원  
이덕선 이사장 유치원도 도입  
기능개선 거쳐 내년 전면 적용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퇴출이 진행되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순항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99.6%에 해당하는 568개원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듀파인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해 사실상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은 100%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99곳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당초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가 지난 15일까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무대상 230개원, 희망유치원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올해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

을 벌이는 가운데 에듀파인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퇴출이 추진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고 개인 연기 투쟁에도 나서면서 에듀파인 도입 찬성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결국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이에 힘을 얻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고 개학 연기를 철회했음에도,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과 노후 서버 교체 등 차세대 에듀파인 개선을 반영해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교육청, 사립유치원과 협의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학부모 분담금 등 재원별 예산과 결산 상세 내역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 오류나 부정정을 방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전국 국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에 도입됐으나 사립유치원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비를 썩짓듯처럼 쓴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를 공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도마에 올랐고,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어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위원칙이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상명대 조현 외교부 제 1차관 초청 특강 진행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서울캠퍼스에서 ‘21세기 한국 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상명대가 사회 각 분야 인사들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생각하고 경험을 배우기 위해 개설한 ‘성공학 특강’의 일환이다.

상명대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초청 특강에서 조 차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현황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한용수 기자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상명대 서울캠퍼스에서 ‘21세기 한국 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 호남대 中 상하이대와 ‘2+2 복수학위제’ 순항

호남대학교가 중국의 글로벌 명문대학인 상하이대학에서 올해 복수학위 과정을 밟을 제2기생 5명을 선발, 파견학생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상하이대학과 체결한 2+2 복수학위제 협약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2+2 복수 학위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복수학위 신청대상을 전 학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학과와 전공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별로 특화된 복수 학위제를 추진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관광경영학과 학생이 선발돼 중국어학과 중심에서 전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호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2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할 중국어과 학생 4명과 관광경영학과 학생 1명 등 모두 5명을 선발해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 한남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최종 선정

한남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남대 창업지원단은 지난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성과 평가를 통과,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전환이 됐다.

이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사업화를 지원한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특화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용수 기자

### 배재대 정강환 원장 IFEA ASIA 회장 취임

배재대는 정강환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사진)이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IFEA ASIA) 회장에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보령머드축제 개발자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각종 축제 자문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IFEA ASIA 회장을 맡아 아시아권 축제의 글로벌 교류를 이끌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계약학과 신설’ 놓고 경북대 본부-교수회 갈등

### 올해 3월 대학원에 정보과학과 신설 교수회 “학칙·규정 무시, 감사 신청”

경북대학교가 올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선발한 것에 대해 이 대학 교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올해 대학원 과정에 정보과학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학과는 한국정보과학진흥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로 석사과정 10명, 박사과정 5명 등 총 15명 정원이 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8일 해당 학과 신설 요청을 받았고, 20일 뒤인 11월 28일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3일 입학시험을 실시해 2월 1일 합격자 등록을 완료, 지난 1일부터 학과가 운영되는 등 학과 신설과 신입생 입학 등의 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회 의장은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구성원과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



경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북대 학칙과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이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번 학과 신설과 학생 모집이 ‘부정 입학’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다.

교수회는 정보과학과 신설 외에도 대학 측이 교과목에 ‘일반선택과목’을 추가하면서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진행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학 본부가 뒤늦게 지난 2월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이 내용을 포

함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부결했다.

이 의장은 “대학 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당일 공포하고 교무처장이 ‘학칙사항은 요식행위다’라고 발언하는 등 학내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많은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가 교수회의 의결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경북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들을 배제하는 등 그동안 학내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왔던 교수회평의회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을 세워 교수회와 학내 다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 측의 이러한 학사 운영 등에 항의하기 위해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교수총회를 소집해 항의하고, 교육부에 대학 본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유지상 광운대 총장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 선임

광운대는 유지상 총장이 지난 15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유 총장은 “지금 대학은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학 사회 봉사의 허브’라는 협의회의 비전을 더욱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인 대사협은 교육부로부터



유지상 광운대 총장

1997년 3월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245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협의체다. 대학과 전문대 재학 중인 회원교 학생들이 국내 외 봉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종로학원하늘교육

### 고교·대입 특별 설명회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의·치·한·수의예, 약대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진선여고 회담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중등 최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 대상의 이번 설명회는 하늘교육, 종로학원, 종로학평 3사가 공동 주최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후 내달 12일까지 서울(노원, 성북, 목동, 영등포), 수도권(인천, 일산, 안산, 의정부, 수원, 분당, 부천, 평촌, 파주, 김포)과 지방에서 연이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안경은 으뜸50안경에서 하자!



Optical Chain Store 으뜸50안경

## 새해 이벤트 2탄!

새학기 맞이 으뜸50안경 고객 감사 행사

학생용 고급 안경테 **모아이(MOEYE) 9900원**

모아이(MOEYE)

2019 으뜸50안경 새해 EVENT 3탄

이벤트 기간: 2월 1일~2월 28일  
결과 발표: 3월 11일 월요일

**으뜸 50안경과 키에그가 총 505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 1 으뜸 50 안경에서 키에그 안경렌즈를 맞춥니다~
- 2 으뜸50안경 top50glasses 공식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 3 키에그 안경렌즈 봉투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으뜸 50 안경 #키에그 #으뜸 50 안경♡점 **해시태그 참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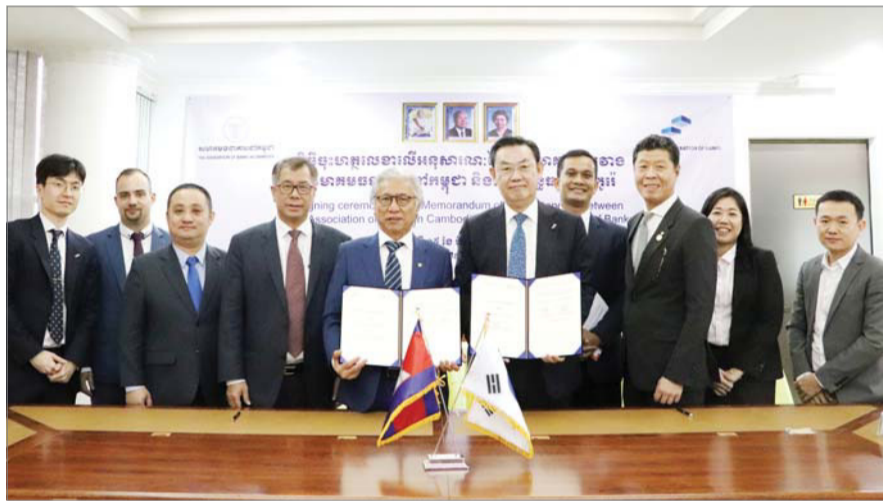
이벤트 상품

< 5명 >	< 250명 >	< 250명 >

강남1호점	02-3477-2006	미아사거리점	02-988-0508	원주점	033-747-5059
강남2호점	02-2052-2022	수원영통점	031-203-2002	천안점	041-564-5001
강남3호점	02-523-7712	수원아주대점	031-211-1825	대전둔산점	042-484-4188
왕십리점	02-2295-5051	수원역점	031-257-1825	대전도안가수원점	042-541-4188
영등포점	02-2634-5050	안양범계점	031-381-1215	대전관평점	042-936-7787
까치산점	02-2693-2688	산본점	031-392-0567	부산남포점	051-256-8816
망원점	02-325-0356	의왕점	031-454-6552	부산사상점	051-313-0407
홍대점	02-332-1175	안산중양점	031-504-9963	부산덕천점	051-337-2535
연신내점	02-356-9127	이천점	031-637-1103	부산동래점	051-552-4819
발산점	02-3665-2583	평택점	031-657-5006	부산경성대점	051-866-1400
건대역점	02-466-5635	분당점	031-705-6505	울산남구점	052-257-0068
이수역점	02-522-0711	동탄점	031-8003-9002	대구중구점	053-428-8001
반포점	02-535-7750	의정부점	031-840-0085	구미점	054-451-0375
천호동점	02-6052-1563	일산동구청점	031-932-8455	포항점	054-615-5545
남영역점	02-707-0780	일산화정점	031-972-1882	광주충장로점	062-229-0007
대학로점	02-747-5707	역곡역점	032-348-2020	광주상무점	062-376-0111
명동1호점	02-752-3931	인천구월점	032-425-6505	광주전남대점	062-382-3939
신림1호점	02-859-3331	인천부평역점	032-511-0110	광주수완지구점	062-955-5083
신림2호점	02-888-8021	춘천점	033-263-0049	전주객사점	063-288-3734
노원역점	02-934-6789	강릉옥천오거리점	033-655-2828	전북익산점	063-857-3734



**중소사랑나눔재단, 중증장애인과 나눔이 봉사활동**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합봉사단 24명이 지난 16일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가연마을을 방문해 봄맞이 나눔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봉사단은 또 평소 외부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함께 김포 월곶면에 위치한 버드봉 테마파크를 방문해 동물원 관람 및 공원산책 등을 하고 쌀 40포대, 생활용품 등 3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사랑나눔재단



**은행연합회,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교류협력 추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신남방 진출을 위해 캄보디아·말레이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캄보디아와 은행협약 확대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은행협회 연수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캄보디아 은행 및 은행협회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지급결제, 핀테크, 리스크관리 등의 연수를 제공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왼쪽 여섯번째)이 분인 캄보디아 은행협회 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포즈를 취했다. /은행연합회



**농협은행, 기업고객 임직원 초청 '장 담그기 행사'**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경기 양평군 지평농협 전통장류센터에서 기업고객 임직원 가족 80여명을 초청해 "농심(農心) 가득 장(醬)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양평에서 자란 국내산 메주콩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장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올해 12월에 직접 만든 장을 배송받기로 해 참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NH농협은행 유윤대 부행장(가운데)과 기업고객 임직원 가족들과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한국지엠, 부평서 환경보존 활동 진행**  
 한국지엠은 '2019에코 프렌들리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한국지엠은 지난 16일 '1사 1하천 가꾸기' 기념식을 갖고 한국지엠 봉사 및 공장이 위치한 부평구 관내 골포천 주변 쓰레기수거 하천 생태 복원 등 보존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엠 임직원 및 직원가족, 공무원, 지역 환경단체 회원 및 지역시민 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지엠



김민 소장의  
 탕탕평평

갈등(葛藤)이란 '취 갈'자와 '등나무'자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취나무와 등나무는 그 줄기가 반대로 감겨있다고 한다. 하나는 시계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감겨진다. 이 둘을 합치려면 당연히 꼬이지 않겠는가. 기업체 등 사람이 모이는 수많은 조직에서는 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최근 필자는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갈등관리를 주제로 적잖은 강연을 다지고 있다. '갈등관리'라는 것이 결국 소통과 리더십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나와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는 게 세상 살이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무조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어떤 소통과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모국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에 따라 이해의 척도와 사용하는 언어의 느낌이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언

## 갈등관리

어만 사용하면 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의도를 상대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상대의 의도 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사실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다. 갈등의 대부분은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제대로 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의 첫 번째는 경청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리더십도 생기고 그 리더십의 힘으로 조직과 세상은 돌아가게 된다. 어쨌든 갈등은 해결하라고 생기는 것이고 그냥 꼬여버리라고 생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부모자식 사이에는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회생활이나 여타의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오죽하겠는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경청이 아니다. 상대의 의도를 최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의 모든 갈등은 서로가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만 해도 절반은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사람들은 스피치 즉 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동호회나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까지 한다. 통역과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뭘지 부자연스럽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동시통역사들이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공부할 때도 대부분은 듣는 수업과 연습을 하지 말하는 것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듣고 쓰고, 듣고 쓰고를 상당기간 반복한다. 서로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각자 그럴싸하게 스피치만 잘한다면 그것이 관계에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또 말하는 것만 배우려 하지, 듣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한다. 생각과 성향과 목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 해결은 소통 즉 경청의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거나 된다 하더라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리더십을 운운하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서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즉 경청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누구나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치듯이 갈등과 소통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메일리폴리 정치연구소장

## 현대백, 임직원 봉사활동 확대... "올 2만시간 목표"

### 65개 사회복지기관과 결연 매월 정기적 봉사활동 추진

현대백화점이 올해 2만 시간을 목표로 임직원 사회봉사활동에 나선다.

17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백화점 임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만8240시간을 기록했다.

사측은 "지난해 약 1200명의 임직원들이 4500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1만 8000시간은 비행기로 지구를 약 420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임직원과 고객으로 구성된 '파랑새 봉사단'을 통해 65개 사회복지기관과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뽕만들기 봉사', '청각장애아동을 위



현대백화점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 자막 입력 봉사', '재활용 크레파스 제작' 등이다.

'뽕만들기 봉사활동'은 '파랑새 봉사단'이 수제뽕 200~300인분을 만들어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에 전달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연간 30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서울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결연을 맺고 청각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 교육 영상 20개에 임직원들이 직접 한글 자막을 입력하는 봉사활동을 다음달부터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인사

-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권 승진 △중양노동위원회 위정장 송병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정장 마성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임승순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상용 △일학습병행정책과장 금정수 △고용차별개선과장 오영민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덕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황종철 ◇과장급 파견 △사회정책협력관실 이강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급 전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파견박상욱 ◇4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 △고객지원팀장 신제욱
- ◆**전남 장성군** ◇4급 전보 △행정복지지국장 안영갑 △경계건설과장 직무대리 박홍수 ◇5급 승진

-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5급 전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석호 ◇5급 승진의결 △기획담당관실 안광수 △일자리경제과 임해만 △교통정책과 이상훈 △산림정책과 서순평 △도시재생과 박준순

### 부음

- ▲인달명 씨 별세, 구광모(전 백산치과 원장)·현모(정후 회장)·원모(전자신문 회장)·용모(금관 사장)·인모(정진물산 사장)·영순·영화·영숙(구치과 원장)씨 모친상, 이효운(전 대우주택 사장), 김두성(안양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전 예성총회장)씨 빙모상, 조문희(예정교회 담임목사)씨 시모상

- = 16일 오전 6시 12분, 서울성모병원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10시 02-2258-5940
- ▲이주홍(전 서울중앙지법원장)씨 별세, 근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근호(법무법인 일호 변호사) 부친상 = 16일,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261
- ▲이경채 씨 별세, 이관도(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실 팀장)·인선·길도(정도측량 대표)·상운(자영업)씨 부친상, 김형석(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광주홍보팀 차장)씨 장인상 = 17일 0시 28분, 전남 해남군 국제장례식장 본관 1호실, 발인 19일 오전, 061-536-4494
- ▲양범조씨 별세, 양해자·양해만(한국투자신탁운용 부사장)·양이화·양순화·양정화씨 부친상, 김재호·김영주·마인재씨 장인상, 이숙희·박혜진씨 시부상 = 17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053-560-9552

# ‘착한 가격’이 뜬다... 가격인상 속 가성비 마케팅 ‘활활’

기존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대 식품업계, 가성비 라면·맥주 등 선행

지난해부터 물가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착한 가격’을 강조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들은 크게는 평균 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저렴한 가격대로 선보인 라면과 맥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심은 1990년 단종된 ‘해피라면’을 30년 만에 부활시키며 ‘가성비 전쟁’에 뛰어 들었다. 가격은 700원으로 오프믹스 진라면(750원)보다 저렴하다. 해피라면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판매됐던 상품이다.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등 다른 제품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가 30여년 만에 부활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나팔부는 아기



농심 ‘해피라면’.

/농심

천사’ 캐릭터를 포함해 옛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했다. ‘해피라면’은 출시 22일 만에 판매량 800만개를 돌파했다. 농심 측은 해피라면의 인기요인으로 중장년층의 추억과 젊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심은 해피라면의 맛 품질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간편한 요리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조리시간은 3분으로 단축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지난달 ‘민생라면’의 가격을 550원에서 390원으로 내렸다. 5개로 구성된 한 묶음은 1950원이다. 이

제품은 이마트24가 지난해 10월 고객의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 최저가로 선보였다. 출시 3개월 만에 40만개 이상 팔렸다. 이마트24 측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개별 가맹점의 손님 유인력을 높여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생라면’의 가격을 더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난 발포주로 가정 채널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 최초 발포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필라이트’가 최근 누적판매 5억캔을 돌파했다. 2017년 4월 처음 출시한 후 1년 10개월(2/22 기준, 688일)만이다. 이는 1초에 8캔씩 판매된 꼴로, 캔을 연결하면 지구 둘레를 1.6바퀴 돌 수 있는 수량이다. 1년 만에 2억캔 판매 때와 비교해도 30%이상 빠른 속도다. 필라이트는 뛰어난 가성비와 100% 아로마 호프를 사용해 고유의 풍미와 맛이 뛰어나 출시와 동시

에 품질대란을 일으키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오비맥주도 지난 1월 젊은 소비층을 위해 ‘필굿’을 출시하며 발포주 시장에 진출했다. 이 제품은 시원하고 상쾌한 아로마 홉과 감미로운 크리스탈 몰트를 사용해 맛의 품격과 깊이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355ml 캔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12캔에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액세서리 업계에서는 못된고양이가 ‘1000원 귀걸이’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가격은 1000원대이지만 무니켈 도금으로 알러지를 최소화 하는 등 안전성도 갖췄다. 또 액세서리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 알러지 때문에 액세서리 선택이 까다로운 여성들에게도 만족도가 높다.

대형마트 3사는 가성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테마를 ‘품격(품질+가격)’으로 정하고 일부 상품을

선정해 가격을 할인하는 ‘생활의 답’과 ‘가성비의 답’ 행사를 매주 진행하며, 홈플러스는 3월 한 달간 특별 할인행사 ‘쇼핑하라 2019’를 전국 140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일 농·수·축산 식품 중 한 품목을 선정해 일주일간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하이트진로



이마트

## 키조개 소비 활성화 박차

이마트가 키조개 소비활성화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0일까지 국민가격 행사의 일환으로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지에서 어획한 제철 국산 키조개(10마리), 관자살(1팩, 30쪽)을 각각 정상가보다 40% 가량 저렴한 9900원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5개월 간의 사전기획을 통해 계류장에 키조개를 비축, 총 30만 마리의 행사물량을 마련했다. 또한 산지 직거래를 통해 거래 단계를 축소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었다. 이렇듯 키조개 소비촉진에 나서는 것은 일본 수출길이 좁아져 어려움에 빠진 키조개 어가 및 협력사를 돕기 위해서이다.

키조개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수출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대일 수출의 존도가 높던 품목이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엔저 현상으로 국산 키조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본 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 통계상 키조개 관자가 속하는 ‘개이지살’의 대일본 수출량은 2011년 55만 1732kg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키조개 생산량은 최근 3년간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키조개 소비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본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국내로 U턴하는 키조개 물량에 대한 판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 스마트 물류센터 ‘오토프레시’ 가동... 효율성 극대화

(롯데슈퍼)

온라인 배송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로봇이 상품 처리하는 스마트 센터  
고효율 시스템으로 시간 단축 극대화

온라인 전용 배송 시스템에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2세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롯데 오토프레시 의왕센터’가 18일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롯데 오토프레시 의왕센터’는 서울의 광순환고속도로 및 과천의양간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수대로, 안양판교로 등 5개의 주요 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인 ‘의왕시’에 전용면적 1990㎡(602평), 영면면적 1507㎡(456평) 규모이다. ‘로봇’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찾아 처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인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다.

‘오토 프레시’는 기존 롯데슈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롯데프레시’ 대비 출하 가능 규모와 피킹(상품 선별 후 배송 바구니까지 담은 과정) 건수가 두 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어 근무 인원의 증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배송을 처리할 수 있어 롯데슈퍼 온라인 채널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식 가동에 들어간 ‘오토프레시 의왕



롯데슈퍼 오토프레시 의왕센터와 오토프레시 로봇 모습.



/롯데쇼핑

센터’는 고효율 창고관리 시스템인 ‘GTP (Goods-To-Person) 피킹 시스템’을 이용해 센터에 있는 로봇과 피킹 작업자가 협업해 주문처리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주문처리 정확도 향상, 기존 센터 대비 저장공간 확대 등 집약적 관리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르웨이의 물류전문 업체인 하테랜드(社)에서 개발하고, 유럽 온라인 마켓의 강자인 ‘OKADO(社)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해 소형 상품 저장 및 관리에 유리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업체에 맞는 물류센터로 설계했다.

‘오토프레시’ 안에는 총 3000여개의 상

온상품이 약 7200개의 상품 보관 상자(Bin)에 나뉘어 있으며, 총 19대의 운반 전용 로봇이 초속 3.1m로 쉼 없이 움직여 실시간으로 상품의 입출고를 관리하고 있어 미래의 물류센터를 연상케 한다.

‘오토프레시’를 통해 고객이 물품을 배송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롯데슈퍼 모바일 앱(롯데프레시앱) 또는 롯데슈퍼를 통해 주문 받은 즉시 센터 안에 있는 로봇이 1차로 상온상품을 바구니(Port)에 담은 후 컨베이어벨트 라인에 실으면 냉동 상품과 신선상품, 대형상품이 순차적으로 바구니에 담기며 포장대로 이동, 포장 및 검수 후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강중현 롯데슈퍼 대표는 “온라인 쇼핑

사업 성장세에 따른 기존 오프라인 배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 온라인 주문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오토프레시 센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슈퍼는 이번 ‘롯데 오토프레시 의왕센터’ 오픈을 통해 의왕, 군포, 수원, 안양, 안산 일부 등 경기도 남쪽 권역 약 17개점의 온라인 주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오토프레시’를 2019년 연간 4개 센터로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홈플러스 ‘쇼핑하라 2019’ 고객 1000만명 돌파

올해 처음으로 유통 업계에서 10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할인 행사가 탄생했다. 홈플러스의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인 ‘쇼핑하라 2019’가 그 주인공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쇼핑하라 2019’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5일까지 총 방문객수 약 108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72만명이 홈플러스를 방문한 것으로 지난 달 일 평균 방문객수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행사 기간 주 평균 매출액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주 평균 매출에 비해 13%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판

격적인 고기 할인전 ‘고기 대방출 1탄’ 행사에도 많은 고객이 찾으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먼저 소고기 상품은 초이스등급 짬갈비(미국산) 32톤, 초이스등급 부채살 19톤, 척아이를 32톤 등 수입 소기가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밖에도 두마리 생닭은 약 3만5000봉이 팔려 7만여 마리의 닭이 고객 밥상에 올랐고, 부산 생물 고등어는 준비 물량 5만 마리가 완판됐다. 또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1.6kg를 9990원에 판매하며 대표적 가성비 상품이 된 딸기는 총 589톤이 팔렸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특별 할인을 이어간다. 매주 특정 기간 동안 가격가에 판매하는 ‘쇼핑 특가’ 상품으로 성주 꿀 참외 1봉을 오는 20일까지 9990원에 판매한다.

또한 ▲대용량 씨없는 청포도 ▲완숙 토마토 1박스 ▲해동 제주감자 ▲필립스 무선 주전자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총괄부장은 “홈플러스의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련한 가격적 할인 행사에 많은 고객이 찾아주시며 1000만 고객 방문이라는 기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모델이 ‘쇼핑 특가 3탄’ 상품인 성주 꿀 참외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록을 세우게 됐다”며 “행사가 끝나는 27일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간간해진 제약·바이오 외부감사 기업, '적자 확대' 실적변동 속출

**'新 외감법' 지정감사·감리 영향 영업이익은 줄고 적자폭은 늘어**

간간해진 외부 감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부 감사를 받은 이후, 거래가 정지되거나 기업들이 공시한 잠정 실적이 변동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신(新) 외감법'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정감사와 감리가 까다로워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어젠은 지난 15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과 매출원가가 문제가 됐다. 케어젠은 현재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조

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과 같은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통상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케어젠의 주총이 오는 26일인 것을 감안하면, 케어젠은 18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모든 요구사항이 해소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케어젠은 홈페이지 주주 공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당사의 영업이나 재무 상태는 건실하며,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케어젠은 거래 정지 직전 시가총액 821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3·4분기까지 매출 455억원, 영업이익 266억원을 낸 우량 기업이다.

외부 감사 이후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된 기업도 속출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처리하는 감사기준이 까다로워진 영향이 컸다.

대웅제약은 외부 감사 결과 순손실이 기존 53억원에서 154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종속회사의 무형자산 감액에 따

라 손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미팜은 적자폭이 늘었다. 영업 적자는 기존 59억원에서 62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52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커졌다. 회사측은 "종속법인의 인체신약개발 비용 등이 경상개발비로 반영됐고, 매출채권에 대한 전제기간 기대손실 손상금액을 인식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차바이오텍은 감사 이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기존 36억원 흑자에서 17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순손실 폭도 기존 15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났고, 강스탬바이오텍은 연결 기준 순손실이 기존 1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확대됐다. 강스탬바이오 관계자는 "전환사체에 포함돼 있는 내재과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정책변경으로 비교재무제표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동제약도 외부감사 이후 영업이익이 120억원 가량 줄었고, 녹십자셀은 당기순이익이 3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업계는 새로운 외감법 시행으로 올해도 회계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매출채권 문제로 회계 감리 대상이 된 것처럼 외감법이 간간해지면서 우량 기업들도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공공빅데이터로 암 잡는 마이크로RNA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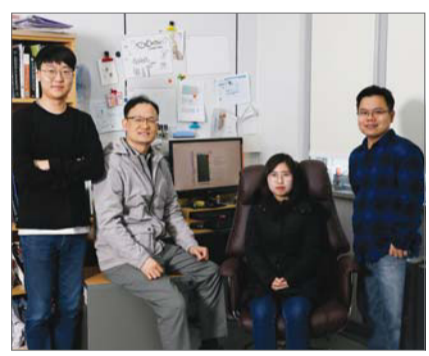
**UNIST 남덕우 교수팀 연구 결과 암 억제 세포 신호조절 경로 발견**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생명과학부 남덕우 교수팀이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을 억제하는 마이크로RNA와 이와 관련한 세포 신호조절 경로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RNA는 19~23개 정도의 짧은 염기로 이뤄진 RNA 분자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포 활동과 암, 당뇨 등 만성질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남 교수팀은 15년 이상 차곡차곡 쌓인 유전자 발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새로운 분석 전략을 개발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각종 질병과 조직 특성, 세포 분화, 약물처리 등 다양한 세포 조건에 따른 5000여개의 데이터 세트



를 가공해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를 수

집했다. 또 마이크로RNA의 염기서열에 기반한 타깃 유전자(마이크로 RNA의 조절을 받는 대상 유전자) 집단의 정보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459개의 인간 마이크로RNA

에 의한 조절 네트워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바이클러스터링이라는 양방향 군집화 분석을 통해 마이크로 RNA가 조절하는 유전자 집단과 관련된 세포 조건을 동시에 제시해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에 바이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하면 줄기세포나 특정 질병 등 다양한 세포 조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RNA 조절 네트워크를 더 정확하게 발굴할 수 있다.

가령 유방암이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과 연결돼 있고, 이들 유전자를 억제하는 마이크로RNA가 무엇인지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로 유방암 발달에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를 miR-29 등 적은 수의 마이크로RNA들이 집중적으로 억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울산=최인락 기자 remark@

## 소아용 인공혈관, 오늘부터 공급 재개

국내 공급이 중단됐던 미국 고어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이 18일부터 공급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에 진행된 고어사와의 긴급화상회의 결과,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소아용 인공혈관,

봉합사, 인조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공급이 재개되는 제품은 인공혈관 7개 모델, 봉합사 8개 모델, 인조포 1개 모델 총 16개로, 복지부는 공급 일자를 조율 중이다.

복지부가 앞서 고어사와 긴급 공급하기로 합의한 20개 소아 폰단수술용 인공혈관은 이날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고어사는 2017년 10월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고어가 독점 공급하던 소아용 인공혈관 등의 재고가 바닥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무한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세경 기자

## 교원웰스 '시스템 정수기' 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교원그룹은 교원웰스에서 선보인 '웰스터원 시스템 정수기(사진)'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제품디자인 본상과 UX 부문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웰스터원 시스템정수기는 물이 출수되는 곳과 정수시스템인 필터링 서버 본체를 분리해 새로운 정수기 사용 환경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 받았다. 출수부와 필터링 본체를 독립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기존 정수기 사용 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또 출수부는 슬림한 사이즈와 우아한 곡선으로 외관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해 주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재질과 칼라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눈에 띈다.

UX 부분에서는 지름 8.8cm의 슬림한 크기에 어울리는 원형 형태의 조작부를



적용하고 터치 휠과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세련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터치 휠을 적용해 직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의 온도와 양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조작부 중앙의 LCD 디스플레이는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봄맞이 '뷰티레스트 매트리스' 10% 할인

시몬스, '스프링 프로모션' 진행

시몬스는 봄을 맞아 '스프링(Spring)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스프링 프로모션'은 시몬스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컬렉션의 특정 인기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매트리스는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인 갤러리 및 백화점 매장에서 '헨리', '윌리엄', '헬렌' 3종을, 공식 대리점에선 '바이브', '바나', '비아테', '이터너티' 4종을 10% 싸게 공급한다.

시몬스는 또 전국 공식 대리점 및 시몬스 직영 갤러리 매장에서 36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350만원 이상 구입시 40만원 상당의 시몬스의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호텔 침구 세트를 증정하는 '웨딩 프로모션'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라지킹', '킹오브킹' 대형 사이즈의 매트리스에 한해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 사이즈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시몬스 침대의 '스프링 프로모션'은 전국 시몬스 침대 공식 매장에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5G 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5G 포럼 스마트공장위원장 김성륜 교수, 5G 포럼 집행위원장 김동구 교수, 이노비즈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의장사 텔스타호텔 임병훈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5G포럼

### 맞춤형 스마트공장 확산

이노비즈협회(중소기술혁신협회)가 5G포럼과 손을 잡고 회원사들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공장 확산에 나섰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웨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공급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입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결성한다. 이후 중소기업형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기술 교류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입기업을 발굴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5G포럼은 이노비즈기업 스마트공장 내 5G 기술 확산 및 표준화 모델 구축을 위해 기술 교류, 자문, 공동 세미나, 수요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새로 나온 책

## 과학자의 책무, 대중적 글로 의미 전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특히 지난 세기를 거치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다.

인터넷과 SNS, 가정용 전자기기에 적용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기술이 이뤄낸 각종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간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큰 변화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바야흐로 '과학 전성시대'다. 각종 TV 프로그램에 과학자들이 패널로 등장하는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어려운 과학이 대중과 점차 가까워지는 시대이자 과학자들의 다양한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공계 전공자, 자연과학 분야 종사자라고 해서 글쓰기와 담을 쌓고 살던 시대도 끝났다.

저자는 과학자들이 전문지식을 기반



과학자의 글쓰기

최병관 지음/지식여행

으로 대중에게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한다. 논문 등 학술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대중적 글쓰기 능력도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과학 글쓰기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전수한다.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과학 글쓰기의 기본과 핵심 요령, 글쓰기 훈련 방법을 소개한다.

248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술 취한 원숭이

로버트 더러리 지음/김홍표 옮김/공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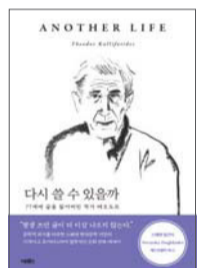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과 후의 술 한 잔. 적당한 음주는 우리에게 창조적 영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선사한다.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 조기 사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양날의 검처럼 즐거움과 고통을 동시에 주는 알코올. 우리는 왜 술을 마시는 걸까.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연구실과 자연의 양조장인 열대 우림을 누비며 풀어낸 알코올 소비·중독 문제의 기원.

256쪽. 1만5000원

### 다시 쓸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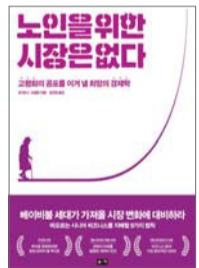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 지음/신권식 옮김/어크로스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스 태생의 스웨덴 작가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는 77세가 됐을 때 4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왔다고 결심한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저주했던 그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시시포스와 같은 삶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학적 위기를 마주한 스웨덴 현대문학 거장의 지적이고 철학적인 은퇴 반복 에세이. 196쪽. 1만2000원

###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조지프 F. 코글린 지음/김진원 옮김/부키



기업들이 노인을 위해 내놓은 상품은 흥행하지 않는다. 은퇴와 신체적 불편에 초점을 맞춘 태도가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그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 최고의 노인 시장 전문가인 저자는 노년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시니어 비즈니스가 빠지는 함정을 제시하고 장수 경제의 미래를 밝힐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방법을 소개한다. 488쪽. 2만원 /김현정 기자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유채꽃

나의 등대는 당신 이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지켜봐주시던 당신

/고흥곤 작

## 결혼의 계절 '봄'...

# 호텔家の 예비부부 맛이

특급호텔들이 싱그러운 봄을 맞이해 '웨딩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하 노보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시내 호텔들이 이달 중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호텔 별로 다양한 콘셉트의 웨딩 쇼케이스가 준비돼 있는 만큼, 예비 부부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 노보텔 강남

프렌치 스타일의 '싱그러운 속 우아함'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플라워 테라스·품위있는 채플식 연출

인터컨티넨탈

파티 테이블·골드 프레임 '중소형 웨딩'

### ◆노보텔 강남, '더 프렌치 가든' 쇼케이스

노보텔 강남은 새로운 스타일의 웨딩을 제안하는 웨딩 쇼케이스 '더 프렌치 가든(The French garden)'을 개최한다.

'더 프렌치 가든'은 싱그러운 속 우아하고 세련된 프렌치 스타일을 콘셉트로 한다. 그린과 화이트, 핑크, 파스를 메인 색상으로 해 고급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한 무드를 동시에 표현한다. 순백의 패브릭으로 감싼 연회장에는 특수 조명이 설치돼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패어가 진행될 샴페인 홀은 세계적 명성의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윌슨어소시에이트'의 디자인 설계로 완성됐다. 음향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신 소재의 우드 월로 벽면을 장식해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샴페인 홀의 리셉션 공간에서는 고객 참여 이벤트, 웰컴 드링크 등으로 구성된 웰컴 리셉션이 진행된다.

노보텔 강남의 '더 프렌치 가든'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에 2층 샴페인 홀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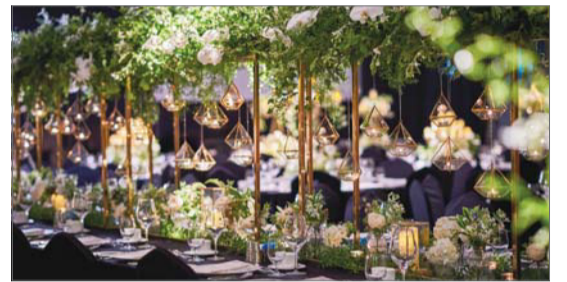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봄을 맞아 처음으로 갤러리 콘셉트의 웨딩 쇼케이스 '담다(Capturing memories)'를 선보인다.

이번 웨딩 쇼케이스는 웨딩 전문 플라워 업체인 세인트 조르디 플라워(Saint Jordi Flower)와 데코레이션 협업을 꽃으로 장식된 야외 테라스 웨딩과 품위 있는 채플식 웨딩 콘셉트를 함께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마치 갤러리에 있는 듯한 작각이 들 수 있도록 곳곳에 신랑 신부의 사진을 작품처럼 전시하고, 웨딩과 관련된 업체 부스 관람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 오는 28일 웨딩 쇼케이스 '더 프렌치 가든'을 개최한다. /노보텔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가 오는 31일 '꿈꾸던 웨딩 그 이상, 비욘드 드림스'를 개최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도 가능하다.

드레스 업체인 루이엘라, 스튜디오 업체 스튜디오 흥진, 남성 예복 업체 마니도로, 청첩장 업체인 페이지 퍼블링, 답례품 업체 초록 앞치마가 참여하며, 각 업체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객들은 간단한 핑거 푸드와 커피 브레이크를 즐길 수 있게 웰컴 리셉션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3층에 위치한 연회장에서 웨딩 전담 매니저와 1:1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의 웨딩 쇼케이스 '담다'는 오는 23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 ◆인터컨티넨탈, '비욘드 드림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새롭게 바뀐 '2019 인터컨티넨탈 웨딩'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웨딩 쇼케이스 '꿈꾸던 웨딩 그 이상, 비욘드 드림스(Beyond Dreams, 이하 비욘드 드림스)'를 개최한다.

웨딩 쇼케이스가 진행될 하모니 볼룸은 최소 300명부터 최대 600명의 하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모던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예비 부부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다.

이번 웨딩 쇼케이스에서는 마치 공연장을 온 듯 발레 공연으로 무대를 연다. 실제 웨딩에 참석한 듯한 웨딩 시연에 참관할 수 있다.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다이아몬드룸에는 파티형 테이블과 골드 프레임이 이용해 중소형 웨딩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이날 웨딩 쇼케이스에 참석한 고객들을 위해 호텔 3층 연회장에서 다양한 체형 클래스를 선보인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웨딩 쇼케이스 '비욘드 드림스'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모니 볼룸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시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롯데호텔 제주 日식당 모모야마서 '봄바다 성계알 코스' 선택

### '봄날애(愛) 패키지' 연박혜택 제공

성계알 지라시시와 속 미소시루, 후식 등으로 꾸집하게 구성됐다.

롯데호텔제주은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입안 가득 제주 봄 바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봄바다 성계알 코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신선한 성계알로 향긋한 바다 내음을 담아낸 이 코스 메뉴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성계알 계란찜, 성계알을 곁들인 사시미, 성계알 맑은국, 성계알 크림 가리비구이, 봄 야채튀김과 성계알 튀김,

성계알 지라시시와 속 미소시루, 후식 등으로 꾸집하게 구성됐다.

5월 31일까지 투숙할 수 있는 롯데호텔제주 '봄날애(愛) 패키지'의 연박 혜택으로도 '봄바다 성계알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이 패키지는 디럭스 룸(레이크 뷰) 1박, 조식 2인, 풍차라운지 2인, 더 라운지 '한라봉 주스' 2잔, 시그니처 해운스 위빙 쿠션 1개, 한국 후지 필름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 등으로 구성됐다.

/김민서 기자



롯데호텔제주 일식당 모모야마의 성계알 코스. /롯데호텔제주

새로운 내일을 위한, 그들의 뜨거운 함성이 시작된다!



Musical  
**1976 HARLAN COUNTY**  
1976 할란 카운티

4/2~4/4 프리뷰 기간 50% 할인

**2019.04.02 ~ 05.05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김다현 서승원 조상웅 | 김훈호 이준용 | 이지숙 이하경 | 김형균 윤석원 | 류수화 구옥분 | 이경수 왕시명 | 강성진 김상현 | 원종환 | 김을 박삼섭 | 엄주식 | 선일 | 조혜인 | 고철순 이덕재 | 이진성 김효빈 | 신은총 임창영 | 우진영 장은지  
프로듀서 심문섭 | 예술감독 서병구 | 작/연출 유병은 | 작곡/음악감독 김진명 | 안무 홍유선 | 무대디자인 서숙진 | 조명디자인 민경수 | 음향디자인 김성민 | 영상디자인 김장현 | 의상디자인 윤나래 | 소품디자인 김정희 | 분장디자인 최리라 | 기술감독 이우원  
주최 (주)이더널제니, 영화의전당 | 제작 (주)이더널제니, (주)예술은공유다 | 후원 부산광역시 |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 문의 02-6956-5155

#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

국민의 안전 담보로 한 정치적 결정  
朴정부 잘못된 결정... 재검토 주장  
비행 위험성·환경파괴 등 문제 지적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이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은 위험, 소음, 환경파괴, 경제성 및 확장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V’ 모양 활자로는 부산 방향은 구덕산, 승학산 때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재호 의원. /뉴스1

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활주로며 김해 방향 역시 공항시설법과 군사기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km짜리 활주로는 대형 화물기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울·경 단체장은 “소음피해가 9배

가량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인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 훼손으로 서낙동강 철새도래지 자연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될 때 4조1700억원이던 건설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이미 6조9900억원으로 뛰었고, 고정장애물 절취비용을 합치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해공항 수요 증가율을 고려할 때 개항 이후 10년 이내 포화상태가 되는데도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에 막혀 활주로를 증설할 수도 없다”며 확장성 문제도 제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며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5개 지역 갈등 현안인 공항문제에 대해 경남, 울산, 부산은 마음을 모았고 대구·경북은 당시 대안이던 통합 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대표는 지난 13일 한 지역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등은 “김해신공항 불가문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은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할 것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동남권 미래에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metroseoul.co.kr



보해매실농원 매화축제 16~17일 매화축제가 열린 전남 해남군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에 봄기운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로 크게 북적거렸다. /해남군

## 안성시, 지역 화폐 ‘안성사랑카드’ 발행

안성시가 총 138억 원대 규모로 지역 화폐 ‘안성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와관련 지난 13일 카드형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카드형 플랫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성시의 지역 화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처음 실시되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또 이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일 개최하는 ‘지역 화폐 운영위원회’에 반영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 범위 및 개인별 구매한도, 인센티브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성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가 발행예정인 138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으로 나누어 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점포, 사행성 업소, 자동차 대리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 평택시, 총리 만나 균형발전 지원 요청

미세먼지·균형발전 등 지역현안 논의  
이낙연 총리, 평택 적극 지원 약속

경기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이낙연 총리를 만나 평택시 지역현안 지원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시장 등은 당진지역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다.

이어 ▲안중에서 평택항까지 철도 조기건설 ▲선박 항만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시범지역 추가선정 ▲평택 도시 숲 가꾸기 지원 ▲GTX 지체지역까지 연



지난 14일 정장선 평택시장·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이 이낙연 총리를 방문해 평택시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평택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평택항을 항만육상전력

공급설비(AMP) 설치 시범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택에서 포승(평택항)까지 철도망 구축 사업 중 안중~평택 구간 조기 착공과 도시 숲 조성을 비롯한 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 광주 북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00여개 수출기업과 상담 기회 제공

광주시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북구는 “오는 4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19 광주 첨단클러스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2019 북업코리아(Boom up Korea) 광주’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며 북구와 광주전남코트리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에 북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유망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재(화장품, 뷰티케어, 유아용품 등), 조선기자재 분야의 30여 개 회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100여 개 수출 기업과 1:1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을 활용한 ‘수출 애로타



개 컨설팅관’을 운영해 수출 애로사항과 해외 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 등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북구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의 수주 성과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해외 바이어를 미리 섭외하고 각 분야의 품목별 사전매칭을 통해 현장에서 수출 계약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출상담회 참가를 희망 기업은 4월 1일까지 북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광주전남코트리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사진)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광주·전남지역 최대 국가산단인 첨단산단 1·2단계, 본촌일산산단 등 북구에 소재한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와 수출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봉태영 기자

##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장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3kW 기준으로 최대 3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는 20㎡ 기준 950만원, 지열 설비는 17.5kW 기준 1,000여만원, 연료전지는 1kW 기준 1,970여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설비 내용과 면적 등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장성군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만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 49개 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도 약 43가구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장성=봉태영 기자 bcj2020@

오늘의 날씨

3월 18일 (월)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0 | 해질 / 18:41

연천 -4/15  
동두천 -3/15  
가평 -4/15  
파주 -4/14  
서울 2/15  
양평 -3/15  
인천 3/12  
수원 1/13  
용인 1/13  
평택 -2/15  
백령도 4/10

자료제공 :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기존 267개 역 제한 기준 삭제  
사업대상지 1.6㎢ 늘어 16㎢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

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시는 역세권을 교차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규정해 사업대상지가 시내 307개 역 중 267개 역으로 제한됐다.

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지 면적은 기존 14.4㎢에서 16㎢으로 1.6㎢ 넓어진다.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 물량이 약 1만 9000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시는 조례 시행 기간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이상 연장했다.

현재 계획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인가가 완료된 30곳(1만289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30곳(9512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21곳(9558가구) 등 총 3만1960가구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튤립 만개... 봄 정취 만끽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튤립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활짝 핀 튤립을 보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여성관리자 23%... 3년 연속 1위

17개 시·도 평균 15% 크게 웃돌아  
최근 5년 신규채용 여성 50% 넘어

서울시는 2018년 기준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 23.1%로 3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7개 시·도 평균 비율인 15%를 크게 웃돈 수치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를 5.5%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신규채용자 중 여성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전체 공무원(자치구 포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연평균 1.8%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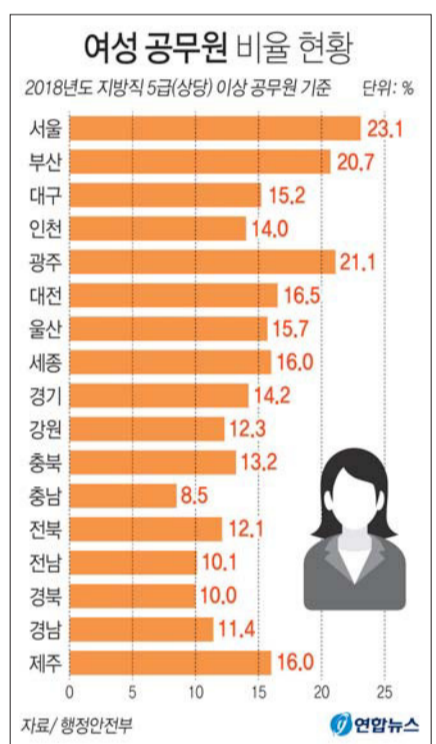
그동안 시는 5급 승진 선발 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고 주요 핵심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는

등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위직으로 진출 가능한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제도 시행으로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의 여성 비율은 2013년 446명(39%)에서 2019년 1월 기준 815명(46.8%)으로 7.8%포인트 증가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여성관리자 증가의 시가 승진·전보 등 인사 운영에 성평등 가치를 담아 운영한 결과”라며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책 마련, 실행에 균형감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이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오늘 철거

4년8개월만에... 유가족 자진철거 의사  
서울시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보관키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18일 모두 철거된다. 2014년 7월 지어진 이후 약 4년 8개월 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천막 안에 있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된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자진철거 의사에 따른 것이다.

이안식에서는 묵념을 시작으로 종교의식, 진혼식 등이 열린다. 분향소에 있는 300개의 영정은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 보관된다.

분향소 천막 14개 동은 18일 오전 10시 철거된다. 철거가 끝난 후 이곳에는 '지역·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지역·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자리에 79.98㎡ 규모로 만들어진다. 현재의 절반 규모다.

전시공간은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전시공간을 직접 운영하되 유가족, 시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시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안전 전시공간은 다음달 12일 시민에게 공개된다. /김현정 기자

##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고령 운전자 ‘꽂’

경기도, 면허 반납땀 지역화폐 지급

경기지역 교통사고 10건 중 1건꼴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27건으로, 이 가운데 4795건(9.5%)은 고

령자가 운전했다.

또 사망자 784명 중 126명(16.1%)이, 부상자 7만7551명 중 7161명(9.2%)이 고령자 운전으로 발생했다.

경기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805만9737명 중 60만4941명(7.5%)이 고령자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65~70세 33만 6601명, 71~80세 23만3502명, 80세 이상 3만4828명 등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4160건, 2016년 4283건, 2017년 4795건 등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선 7기 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1인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1만명에게 지원, 2022년까지 총 3만7000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 원삼면 토지거래때 용인시 허가 받아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쭉고 있다.

특히 투기 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뺨대방’도 20여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올 데이케어센터에 154억 투입

서울시는 어르신돌봄 ‘데이케어센터’에 올해 154억1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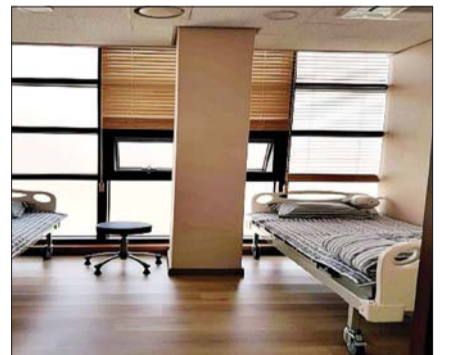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노인에게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선 시는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에 33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구·법인에는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관할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 비영리단체는 관할 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의 1차 심사 후 시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다.

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에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120억4000만원을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모습. /서울시

지원한다. 현재 시에는 총 391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192곳(49%)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공인인증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매년 평균 60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이용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요양시설 설립 시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종교시설 활용,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임시정부 100주년] 역사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 04



Life

[산업] 신형 쏘나타 돌풍 닷새만에 1만대 돌파 06



여행 단신

한반도투어 맑고 청정한 울릉도로 봄 여행을

한반도투어(사장 김삼원)가 봄에 떠나는 신비의 섬 '울릉도 2박3일' 상품을 출시했다. 봄을 맞아 2박3일동안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출발해 묵호(강릉)·울릉도·육로관광A코스·육로관광B코스·성인봉·독도·케이블카·독도박물관·행남산책로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한반도투어 '울릉도·독도 2박3일' 상품은 매일 출발가능하고 왕복셔틀버스비용, 숙박(2박5식), 관광지 입장료 모두 포함 상품이다. 1인 금액은 26만원부터다. (02)777-8883

누림여행사 대마도 1박2일... 역사·먹방 여행

누림여행사(사장 황용만)가 국경의 섬 대마도 여행을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대마도여행은 당일 및 1박2일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대마도 관광은 첫날 도착해 전용 버스로 한국전망대, 와타즈미신사, 예보시디케 전망대, 만관교 등을 관광하고 둘째날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최익현 선생님 순국비 등을 관람한다. 대마도 1박2일 상품은 일·월~목요일 출발 14만9000원, 금요일 출발 20만9000원, 토요일 출발은 29만9000원이다. (02)757-2500

광화문포럼 중소여행업 생존 위해 차별화 필요

광화문포럼이 '중소여행업 상생방안-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13일 60여명의 여행업계 리더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광화문포럼 이장환 회장은 "작년 한국 출국자 수가 2870만명에 이르고, 3·4분기 국내외여행업 여행사 숫자가 1만7000여개에 달한다. 글로벌 OTA여행그룹의 성장세와 공유경제산업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며 "이런 여행산업의 빠른 변화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옹형수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담당 컨설턴트가 '중소여행업 상생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그는 "여행사는 수익을 만드는 신상품·차별화된 상품 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관광인산악회 관광인들 북한산서 시산제 가져

관광인산악회(회장 이웅철 주은항공 대표)는 지난16일 북한산 우이동에서 관광인산악회 시산제를 가졌다. 올해 6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산제에는 항공사 여행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2019년 관광업계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시산제에 앞서 관광인들은 북한산 우이동을 출발해 대동문을 거쳐 도선사로 하산하는 동안 전날 내린 눈으로 뜻밖의 눈꽃산행을 하는 행운도 가졌다. /이민희 기자



광 오사카 이색상품.

/모두투어

스트레스 날리고 먹방 즐기고 2시간만 날면, 일상 탈출 맘껏 자유!

메트로 트래블

"여행은 편하고 안전해야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한다. 맛있고 색다른 음식도 먹어야 한다." '부킹닷컴'이 한국인 1805명 포함해 전세계 31개국 5만3492명을 대상으로 '여행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약된 여행의 목적이다.

한국인의 경우 '바쁜 직장에서 벗어나기', '새로운 음식 경험' 등 변화를 추구하거나 경험을 넓혀주는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짧은 해외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부킹닷컴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여행지 톱 3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로 뽑혔으며 비행기 2시간 이내 소요되는 해외 여행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인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시티투어▲관광지 투어▲해변 바캉스▲미식투어 순으로 밝혀졌다.

눈에 띄는 점은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여행욕구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바쁜 직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와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가 81% 꼽혀공동 1위에 올라갔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여행을 떠난다고 답해 최근 '먹방' 및 '룩방'의 인기가 여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숙소를 예약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사이트나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 선택 기준에 있어 국내여행객들 약 4분의 3이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여행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먹거리' 및 '뛰어난 자연경관'도 여행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로 꼽혔다.

한국인 여행객 76%가 올해 여행 중 문화 교류를 통해 기술을 배울 계획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행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여행 및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알아두면 좋은 3~4월 여행정보

여행 플랫폼 '아고다'를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BC카드에 적용되며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된다. 또 아고다는 국내 원화결제 가능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상 변화 추구하는 여행 욕구 높아 비행 2시간 이내 해외 여행지 선호

깨끗한 자연·온화한 날씨 여행지 급부상 아이 동반·벚꽃축제 등 이색여행 상품도

아고다에서 삼성·NH·KB국민·하나·롯데·BC카드 로 결제하면 해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숙박 비용을 3% 절감할 수 있다.

여행 솔루션 '카약'은 항공권 검색 시 항공기 기종을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을 15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전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항공기 기종을 제외한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은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10개 국가로 떠나는 항공권 검색량을 분석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시작한 최근 한달간(2월 11일~3월 10일)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았던 10개국 항공권 검색량은 전년 대비 최대 2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 기준)

한편, 가장 성장 폭이 큰 여행지는 예능 여행지로 떠오른 포르투갈(+230%)이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호주(+171%)와 천혜·자연을 사랑하는 노르웨이(+132%)가 뒤를 이었다.

깨끗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신흥 여행지도 급부상하고 있다. 여행 검색엔진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1~2월 간 항공권 검색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신규 취향 여행지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은 베트남 푸꾸옥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81% 상승했다. 푸꾸옥 다음으로는 나트람이 전년 동기 대비 10%증가했다.



아름다운 절벽마을 포르투갈 아제라스 두마르.

/트립닷컴

31개 유럽 국가를 기차여행 할 수 있는 '유레일'은 유럽 서머타임과 함께 유레일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37%까지 인하되고, 4월 9일까지다. 원컨트리 패스도 10% 추가 할인된다.

알로하 '하와이안항공'은 전 노선 승객 및 미주 공항리운지 이용객에게 '라이언커피(Lion Coffee)'를 제공한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로 취항하는 '터키항공'은 새로운 '이스탄불 공항'으로 완전히 이전한다. 4월 5일 금요일 오전 3시부터이며, 총 45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내서 벚꽃축제를...이색상품도

'모두투어'는 상반된 테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색상품을 출시했다. 4월부터 매주 월요일·수요일 티웨이항공(TW)을 이용해 출발하고, 월요일은 인천-오사카-광, 수요일은 인천-광-오사카 일정으로 진행된다.

직판 여행사 KRT여행사는 아이 동반 만족도 높은 해외여행을 위해 산양분유기업 아이베넷과 손잡고 기획여행전을 선보인다. 4월 30일까지 KRT '광 아이베넷 PACK'을 예약한 아이 동반 고객이 대상이다. 아이 연령에 따라 베베 PACK, 꼬마 PACK이 룬당 1개 증정된다. 베베팩 100세트, 꼬마팩 200세트가 준비돼 있고, 선착순 300팀에게 증정 예정이다.

호텔 예약 서비스 '호텔스닷컴'은 최근 일본 실내에서 벚꽃을 즐기는 '실내 벚꽃놀이'도 새로운 문화로 떠오른다고 알려졌다. 실내 벚꽃놀이(에어하나미)란 실제 벚꽃 대신 사진, 영상, 조화, 음식 등으로 벚꽃놀이를 즐기는 행위로 번잡한 군중 대신 호텔, 식당, 스파 등에서 편안하게 벚꽃 분위기를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된 트렌드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한국인 세대별 여행 패턴을 분석했다. Z세대(18~24세)부터 밀레니얼 세대(25~39세), 베이비붐 세대(40~59세)까지 총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Z세대는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밀레니얼 세대는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여행에 가장 적극적인 건 Z세대다. 55.2%가 상반기에 국내여행을떠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여행 계획이 가장 많은 세대는 밀레니얼세대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